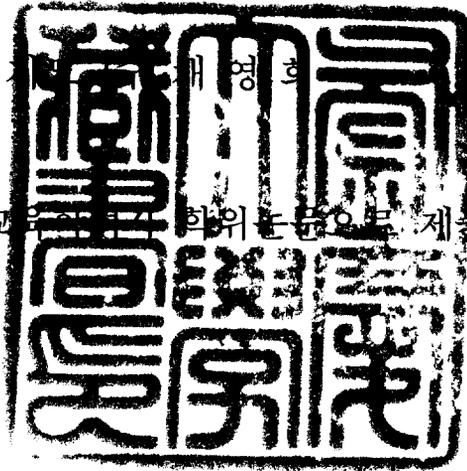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통한
독해력 신장 방안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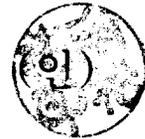
국어교육전공

구 맹 회

구맹회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위 원 문학박사 박 영 준



목 차

영문 요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3
3. 연구 문제 및 가설	7
4. 용어의 정의	8
5. 연구의 제한점	10

II. 이론적 배경

1. 독해 지도 전략.....	11
2. 글의 내용구조 지도 전략	14
3. 문장의 연결 관계 지도 전략.....	17
4. 중심내용 파악 지도 전략	2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37
2. 실험 방법 및 절차	38
3. 실험 자료	39
4. 자료 분석	39

IV. 실제 지도 방안

1. 교수-학습 모형	40
2. 글의 내용구조 지도안	41

3. 문장 연결 관계 지도안	63
4. 중심내용 파악 지도안	70
V. 연구의 결과	
1. 가설 1의 검증.....	79
2. 가설 2의 검증.....	81
VI. 결론	84
참고 문헌	86
부록	88

표 목 차

1. 장애성의 접속부사의 분류 체계	23
2. 접속부사의 분류 및 기능	25
3. 접속부사의 출현 빈도.....	26
4. Baumann의 중심내용 찾기 전략의 위계 모형 9단계.....	30
5. 사전검사 결과(가설1).....	80
6. 사후검사 결과(가설1).....	80
7. 사전검사 결과(가설2).....	82
8. 사후검사 결과(가설2).....	8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the Strategy of Main Content Analysis

Maneg-Hoe K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or students to study curriculum subjects, ability to read the text quickly and precisely is necessary. That is to say re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 in curriculum study.

However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the effort to help increasing students' reading skill lacks. Even in language study curriculum, reading skill is abstractly taught and the textbook contains no subjects related to reading skill. Therefore, I aimed to increase reading skills by guiding them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Seniors in Busan Jangnan Highschool were to become subjects of this study, and there may be certain limit to generalize the result of the study to students in different environment.

To attain the goal of the study, reading strategy was designed through documents research and the reading strategy was taught to students by providing them with content structure, signals (conjunction adverb), main idea catch skill.

In teaching contents structure, four structures, collection, cause and effect, problem solving, compare/contrast classified by Carrell (1984) who had resorted what Mayer brought out in 1975. There are several classifications in contents structures however the reason why Carrell's classification was used is that it is simp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nd in each name of categories shows the contents structures.

And then signals providing core informations in catching the context was taught to students. There are several signals but conjunction adverb was chosen since it shows

contextual relations externally.

Lastly, main idea catch skill which makes students able to efficiently catch the main idea of the text. This was because in formal paragraph, they can classify main idea and supportive idea more efficiently.

Teaching-learning model was provided through teaching model developed by Park, Kyung Suk and other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hich was based on Baumnn's direct teaching method.

The data of the study was collected through several texts from text books 「Korean Language 1, 2」 and texts from university entrance exam - language part (from 1994 to 2005)

To bring up with result of this study, pre-examination and post-examination was done, and in data analysis, t test was given to average score of test group and comparison group using SPSS 11.5, the statistics process program. Pre-examination was done to test similarity of test-group and comparison group and since two group had showed similar result grade of 0.05, two groups could be said to be similar groups. Post-examination was done to verify the effect of the test. After the study, average grade of test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comparison group. In the independent sample test, average grades of two groups were similar in 0.05 grade. This affirms the theory that analysis of main idea would help to increase reading skill.

This study shows teaching strategy to catch main idea in actual educational field is effective in increasing reading skill and it is necessary to teach these sorts of reading strategies. Therefore in educational field, teachers should not limit themselves only in teaching texts but help students to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in effective manner by developing various kinds of reading strategies.

Keyword : Main idea, reading skill, signal, content structure, conjunction adverb.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해력은 교과 학습의 도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교과 학습도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Le Fevere(1988)은 독해력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는 곧 학업성취도의 증진과 직결된다¹⁾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능률적인 교과 학습을 위해서는 독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독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해 방법의 지도에는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교사들은 대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학교에서의 평가 또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가를 측정하는 데 치중하는 편이다.

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독해 방법 지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권점출(2000:6)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어 교과 시간에 독해 방법을 지도하지 않는 이유를 ‘지도 방법을 몰라서(65%)’, ‘자료가 없어서(18%)’ 등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어교과 시간에도 독해 방법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국어과의 교육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해(읽기) 영역 중에서 독해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3학년부터 9학년까지 6년(7학년은 없음)에 걸쳐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

1) 임두순(1989: 60), 재인용

과정은 독해 방법에 대해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국어 교과서 또한 독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8학년에는 ‘여러 가지 표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8학년 국어 교과서(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는 ‘표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독서 방법을 가르치는 단원인 ‘어떻게 읽을까’에서조차 ‘효과적인 독서 방법’으로 SQ3R에 의한 독서 방법을 서술할 뿐, ‘표지’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이 단원의 ‘학습활동’은 이 단원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대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²⁾ 다시 말해, 국어의 교육과정에는 ‘문장의 연결 관계’나 ‘표지의 종류와 기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국어 교과서에는 그것의 내용과 지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의 다른 단원도 독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이 없는 점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어 교과서의 읽기 단원에 해당하는 ‘7.글과 표현·10.내용 요약하기·12.내용의 전개 방법(중학국어 2-1)’, ‘3.글의 짜임·9.주제 파악하기·13.지식과 경험(중학국어 2-2)’, ‘2.글과 표현·6.독서의 방법·12.세부 내용 파악하기(중학국어 3-1)’, ‘6.추론하며 읽기·12.읽기와 쓰기(중학 국어 3-2)³⁾와 같이 설명적인 글과 관련된 단원에도 구체적인 독해 지도 내용은 없으며, 고등학교 국어(제10학년) 교육과정에도 독해(읽기)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교육현장에서 독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해 방법을 지도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글의 ‘내용구조나 구성방식’, ‘표지’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능률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내용구조

2) 교육부(2003:11~19), 중학 국어(2-1) 교과서

3)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크게 ‘①말하기·듣기, ②쓰기, ③읽기, ④문학, ⑤언어’의 5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원들은 ‘읽기’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및 구성 방식'은 글의 중심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글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문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외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표지인 '접속부사'의 기능을 알고 있으면 문장의 연결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외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표지인 '접속부사'와, 글의 내용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구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지도하여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2. 선행 연구

교육 심리학 또는 학습 심리학 등이 발달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학습 전략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어떤 유형의 학습 전략이 개발되면 그것을 독해 지도에도 적용하는 연구가 전개되어 독해전략 또한 유형화되어 왔다.

독해전략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대한 분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독자 주도적 전략(reader-initiated strategy)'과 텍스트⁴⁾ 주도적 전략(text-initiated strategy)으로도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독자 주도적 전략은 독자가 독해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독해하도록 지도하는 전략이고, 텍스트 주도적 전략은 독해의 직접적

4) 독해 대상인 텍스트에 대한 진술은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또는 '글'이라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되, 문맥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려하여 '텍스트' 또는 '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략이다. 독자 주도적 전략은 소위 SQ3R과 같은 전략이 있고, 텍스트 주도적 전략은 Meyer의 내용구조와 같은 것이 있다. ‘텍스트 주도적 전략’ 과 관련된 연구는 다시 ‘텍스트의 내용구조’와 ‘구조표지(markers)’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구조’와 관련한 연구는 Kintsch와 Van Dijk(1978), Meyer(1975, 1985), Richgels와 Mcgee(1989), Gorden(1990), Englert와 Raphael과 Anderson(1992)⁵⁾ 등이 있고, 구조표지에 대한 연구는 Tumer & Greene(1977)의 연결사(connective)와 Kieras(1985)의 신호어(signaling), 그리고 Meyer(1985)의 신호어(signaling)⁶⁾등의 선행 연구가 있다. 독해전략에 대한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글의 내용구조 지도와 구조표지 지도가 독해력 신장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글의 내용구조와 구조표지의 연구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글의 내용구조 및 구조표지 지도를 통한 독해력 신장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중에는 글의 내용구조와 구조표지를 상호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연구도 있었고, 내용구조와 구조표지를 묶어서 지도하는 방법의 연구도 있었다. 몇몇의 예를 들면 임두순(1989), 박수자(1995), 김봉순(1996), 박경숙 외(1988, 1989), 김수영(1999), 김진숙(2000), 전진영(2001), 조동훈(2003), 이선희(2003) 등의 연구가 있다.

박수자(1995)는 독해 단서⁷⁾를 지도하면 텍스트의 독이성에 대한 척도로써 기능할 수 있고, 텍스트 독해 지도 내용의 선정과 단계화의 자료가 되며, 텍스트 독해력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수

5) Moore(1995 : 598, 노경숙 2001 : 3~4)에서 재인용

6) 김봉순(1996 : 5)에서 재인용

7) 박수자는 ‘구조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해 단서(reading cues)’ 또는 ‘단서(cu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의 연구는 실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봉순(1996 : 125)은 “텍스트나 담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텍스트의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 주고 있으며 (Graesser, Gelding, & Long, 1991 ; Weaver & Kintsch, 1991), 유능한 독자들이 텍스트 의미 구조를 고도로 조직화하여 재구성하고 기억한다 (Crothers, 1972 ; Frederiksen, 1975a,b ; Meyer, 1974)는 점이 또한 이를 방증해 준다.”고 하였다. 김봉순(1996)은 구조표지가 정확하고 충실할수록 독자의 이해는 쉽고 명확해지며, 구조표지의 사용은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했다.

김수영(1999)은 효과적인 읽기 지도 방안으로 텍스트 구조 학습을 제시하였으며, 텍스트 구조 학습을 위한 전략으로는 ‘도해조직자⁸⁾ 이용 전략’과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구조 유형은 ‘시간 순서와 공간 순서, 예시, 열거,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구조’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구조 유형을 도해 조직자를 사용하여 지도하였다. 그 결과 독해력 및 회상 능력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진숙(2000)은 텍스트의 내용구조를 수집, 부가, 인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상세화로 나누어 중학교 3학년에게 지도하였더니 텍스트 구조 이론을 학습한 집단의 독해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전진영(2001)은 영어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방법 연구에서 문단 유형을 수집형, 예시형, 비교·대조형, 원인·결과형, 비유형, 묘사형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방법과 문단 이해를 위한 주제문 찾기·중심 찾기·연결어 찾기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조동훈(2003)은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해 글의 유형별 신호어를 지도하

8) ‘도해 조직자(graphic organizer)’는 텍스트의 내용구조를 도식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서, 연구자에 따라 ‘도식 조직자’, ‘그래픽 조직자’로 해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의 유형은 열거형, 시간 순서형, 원인·결과형, 비교·대조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각 유형에 따른 신호어를 지도한 결과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흥미 유발에 효과적이었으며 정기고사와 모의고사에서 모두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선희(2003)는 중심내용 찾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텍스트 구조 파악 단계’이고 2단계는 ‘부분별 내용 파악 단계’라고 하였다. 중심내용을 파악할 때 ‘텍스트 → 텍스트 구조 파악 단계 → 부분별 내용 파악 단계 → 중심내용 파악’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구조 유형’을 ‘대등 구조’와 ‘종속 구조’로 나누고, 텍스트 구조 유형과 관련한 각각의 단서를 통하여 중심 내용을 찾는 과정을 제시했으나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글의 내용구조와 구조표지의 실재를 밝히고, 그것을 활용할 때 독해력이 신장된다는 내용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즉, 글의 내용구조는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구조의 유형을 알면 독해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글에는 글의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 구조표지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독해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개 이론적인 면에 머문 경향이 많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가설

독해력은 글 전체의 내용, 중심내용, 각 내용간의 관계 등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험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와 같은 독해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선 본 연구자의 실험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많은 수업 시간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학급 간에 내신 성적에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급 간에는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연구는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구조표지(접속부사)를 학습하면 문장의 연결 관계를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인가?

둘째, 학생들이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학습하면 글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인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구조표지(접속부사)에 대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장 연결 관계를 더 잘 파악할 것이다.

둘째,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 대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글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접속부사⁹⁾

독해란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독해의 대상이 되는 글에는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김봉순(1996:3)은 ‘텍스트의 의미 구조의 표지(markers of text-structure)’라고 하였다.

또한 박수자(1995:105~106)는 독해에 도움을 줄 언어 지식들을 ‘독해 단서(reading cues)’라고 지칭하였으며, “독해 단서란 바로 독해 진행 과정에서 텍스트가 제시하는 도움 지식으로서, ‘하나의 지시소에서부터 광범위하게는 텍스트가 제시되는 지면의 조직이나 삽화, 도표’ 등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가 중심내용을 찾는 동안에 언어적 단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독해에 분명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접속부사는 이러한 구조표지 중의 하나로서 단락과 단락,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의 연결 관계를 외적으로 보여준다.

접속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는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¹⁰⁾로 설정하고 있다.

9) 접속어의 품사 분류 방식의 변천에 관해서는 이광정(1987)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 다루는 접속부사를 대상으로 한다.

10) 국립국어연구원(2001), 『표준국어대사전 v. 1.0』, 두산동아출판사

나. 중심내용

보통 단락은 한 문장 또는 그 이상으로 서술한 문장으로 구성된다. 중심내용은 그 단락의 다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된다. 중심내용이 아닌 내용은 중심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뒷받침 내용은 대개 구체화나 상세화되거나 예시, 인용, 근거, 이유 등의 방법으로 진술된다.¹¹⁾

중심내용은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심내용이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주제문이라고 하고, 하나의 단락에서의 중심이 되는 문장을 특별히 소주제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단락의 중심내용을 말할 때 주제문과 소주제문을 구별하지 않고 주제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형식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주제문과 뒷받침문으로 구분했을 때 주제문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주제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내용'이라고 하고, 주제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내용을 '뒷받침 내용'이라고 하였다.

다. 독해력

독해력은 읽기의 최종적 목표로서 복합적인 활동이다. 이성은(1994)은 독해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적 배경을 필자의 언어와 관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독해력은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읽은 내용을 분석, 종합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글을 읽고 각 형식 단락의 중심내용 및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한정하였다.

11) 고등학교 국어(상)(1993:190) 교과서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장안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산장안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의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농어촌 학교이고 시내 중심지의 학교에 비해 학력이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학교의 특성 및 본 연구의 연구 범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가. 본 연구 내용을 다른 환경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나. 연구 대상자들의 문장 연결 관계 및 중심내용 파악 능력을 객관식 문제만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독해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 연구 대상들에 대한 사전 지식의 정도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키마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다.

라. 실험 처치 기간이 4주이므로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독해 지도 전략

독해전략은 독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다. 독해전략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학습자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글을 독해하는 전략인 Robinson(1961, 1983)의 SQ3R을 들 수가 있다. 즉, Survey(훑어보기), Question(제목을 질문으로 만들기), Read(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훑어보기), Recite(질문에서 해답까지 암송하기), Review(즉시 복습하여 아이디어나 중요 내용들을 조직하기)가 그것이다. 이 SQ3R 전략에 이어 유사한 독해전략이 다수 개발되었는데, PQRST(Preview, Question, Read, State, Test), 3S(Scan, Search, Summarize), OK5R(Overview, Key idea, Read, Record, recite, Review), Reflect) 등이 그 중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독해전략은 전적으로 학습자가 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파지 및 회상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독해하도록 하는 전략이며, 독해의 대상인 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적·외적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아니었다. 물론 이 독해전략도 독해 방법을 지도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독해 지도 전략이 된다.

그런데 Meyer(1975)가 글의 내용구조를 분석하여 집합형(collection structure), 기술형(description structure), 인과형(causation structure), 문제해결형(problem/solution structure), 비교형(comparison structure)의 다

섯 가지로 나누면서 독해전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그 후에 Meyer & Freedle(1984)과 Carrell(1984)등은 Meyer(1975)가 분류한 이 다섯 가지 내용구조 중에서 집합구조(collection)와 기술구조(description)를 묶어 수집구조(collection of descriptive)라 부르고 원인 결과 구조, 문제 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의 네 가지 구조로 분류하였다.¹²⁾

또한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독해전략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우선 Berliner & Rosenshine(1977)에 의해 **직접 교수법(direct instruction)**이라는 용어가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다. 직접 교수법은 '안내→예시→시범→교사 보조 활동→학생 독립 활동'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¹³⁾

직접 교수법에 이어 **현시적 교수법(explicit instruction)**등이 등장하였다. 현시적 교수법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교사가 수업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범을 통해서 보여 주거나 직접 설명해 준다. 둘째, 교사가 안내해 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해 나가게 한다. 셋째, 다른 읽기 상황에서 그들이 배운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 현시적 교수법은 '시범→교사 유도 연습→강화→학생 독립 연습→적용'의 5단계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독해 방법을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은 교육심리 등에서 이미 개발한 전략을 독해에 적용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이 독해력 신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몇 편을 살펴보면 이경화(1996)는 「독해 점진 전략의 상보적 수업을 통한 아동들의 독해력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상보적

12) 김진숙(2000 : 25), 재인용

13) 위의 글(11), 재인용

수업이 신뢰롭고 독해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고, 기철호(1997)는 「정교화 전략 훈련이 아동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서 아동의 독해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장성복(1998)은 「정교화 전략을 활용한 읽기 지도와 독해력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읽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독해력도 신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박용한·최병연(2003)은 「독해전략 교수법이 초인지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보적 교수법이 직접교수법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독해전략의 연구 추이를 살펴보았다. 독해전략의 변화 과정은 초기에는 학습자 중심의 독해전략이 개발되다가 점차 글의 구조지도 방법의 연구로 옮겨 가게 되었고, 글의 구조지도가 지나치게 글의 내용 중심의 지도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상보적 교수법·정교화 전략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독해전략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상보적 교수법이나 정교화 전략 같은 교수-학습법이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상보적 교수법이나 정교화 전략 같은 교수-학습법은 수업이라는 한정된 활동 속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독해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유용성이 낮아 보인다. 왜냐 하면, 독해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독자가 혼자서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독해전략이나 글의 내용구조 또는 표지 지도 전략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 연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이러한 독해전략을 익히고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2. 글의 내용구조 지도 전략

글의 내용구조 지도와 독해력 신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밝힌 Meyer(1975)의 텍스트 내용구조가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텍스트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와, 어느 정보가 상위 개념이고 어느 것들이 하위 개념인지를 보여준다. 이 개념들이 위계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수형도(tree structure)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글의 내용구조(content structure)라고 하였다.

Meyer가 분류한 텍스트의 내용구조는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의 근간이 되고 있고, 글의 구조 지도가 독해력 신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¹⁴⁾

- 1) **수집형**은 한 화제에 대하여 하나가 아닌 여러 특성, 여러 종류, 여러 배경이 제시되는 구조이다. 한 화제에 대하여 단순히 개념이나 생각을 관련지어 모아놓거나 나열함으로써 가장 자유로운 조직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형과 연합하는 경우가 많다. 집합형은 개별 서술에 대한 모듬의 성격이 짙으므로 의미 관계가 그다지 긴밀하지 못한 특징을 지닌다.
- 2) **기술형**은 단 하나의 조직 구성소를 갖는다. 한 요소가 화제에 종속되어서 그 화제를 상술한다. 앞에 나온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언급하거나 다른 대상이나 내용에 비겨서 표현할 수 있다. 기술형은 한 화제에 대하여 하나의 특성, 하나의 종류, 하나의 배경을 제시해서 그 화제에 관하여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 3) **원인·결과형**은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논리적으로는 원인과 결

14) 김진숙(2000 : 25~26)에서 재인용

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요소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다.

4) 문제·해결형은 명제들 사이가 내용적으로 문제와 해결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외에도 인과관계라는 조직적 요소를 내포해야 한다. 문제해결형의 요건은 문제의 원인과 제안된 해결책 사이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⑤ 비교·대조형은 여타의 구조와 범주를 달리한다. 두 가지 이상 사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진술되는 구조이다. 둘 이상의 화제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대조하여 기술할 수도 있고, 하나의 화제를 여러 관점에서 조명하여 사항별로 비교·대조할 수 있다.

김진숙(2000)은 「텍스트 구조 지도가 독해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Meyer의 텍스트 구조 이론을 학습한 집단의 독해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노경숙(2001)은 「텍스트 구조 지도 전략의 효과」에서 Meyer가 분류한 다섯 가지 설명적인 글의 구조를 Meyer & Freedle(1984)과 Carrell(1984)이 집합구조(collection)와 기술구조(description)를 묶어 수집구조(collection of descriptive)로 묶어 네 가지로 정리한 글의 내용구조를 바탕으로 그 각각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조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수집 구조 : 수집 구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개념들이 속성, 예시의 집합관계에 따라 조직된 구조이다. 정보들 사이에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독립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다른 관계 유형에 비해 관계의 정도가 약하고 단순하다. 표지어로는 ‘첫째, 둘째,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이 있다.

2) 인과 구조 : 원인-결과 구조는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일’인 원인 개념과 시간적으로 ‘뒤이어 일어난 일’인 결과 개념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관계 구조를 말한다. 표지어로는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로써, 그러므로, 왜냐하면’ 등이 있다.

3) 문제해결 구조 : 문제해결 구조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의미 관계를 형성한다. 문제해결 구조는 문제를 나타내는 개념이 해결을 나타내는 개념보다 선행한다는 점에서 인과 구조와 비슷하지만 문제와 해결 사이에는 화제에 대한 내용에서 공유되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표지어로는 ‘문제는, 풀다, 문제-해결’ 등이 있다.

4) 비교·대조 구조 : 비교·대조 구조는 둘 이상의 화제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대조하여 그 장단점을 판별하거나 하나의 화제일지라도 여러 관점에서 그 장단점을 비교·대조하는 수사적 구조이다. 비교는 유사점을,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지만, 글에서는 비교와 대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지어로는 ‘다른, 반대로, 서로 같은, 반면에’ 등이 있다.

노경숙이 텍스트의 내용구조와 구조표지를 관련 지어 연구한 것은 그 이전의 내용구조 지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조표지를 알면 글의 내용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글의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삼형(1994)은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에서 텍스트의 분석 단위를 수집, 부가, 공제, 인과, 이유, 비교·대조, 문제-해결, 상세화 등으로 나누어 지도했을 때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가 독해력 신장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삼형(1994)은 글의 내용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한결 같이 글의 내용구조 지도가 독해력 신장

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글의 구조 지도가 독해전략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글의 내용구조가 독해력 신장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글의 내용구조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서술한 독해 방법을 국어교과서에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글의 내용구조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어에서도 글의 내용구조 및 구조표지 지도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글의 내용구조 지도의 효과를 연구하되, 글의 내용구조는 Meyer & Freedle(1984)과 Carrell(1984)등이 분류한 수집, 인과, 문제해결, 비교·대조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내용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내용구조의 유형이 네 가지에 불과하고 그 명칭에서 글의 내용구조가 바로 드러나므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3. 문장의 연결 관계 지도 전략

문장 또는 단락을 연결하는 방법은 접속부사를 사용한 방법 외에도 지시어 사용, 동어(동구) 반복, 유의어·상의어·일반어 사용, 또는 앞의 내용 요약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지시어, 동어 반복, 유의어, 상의어, 일반어는 문장과 문장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여 준다. 그러나 문장의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외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접속부사는 문장의 연결 관계를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내 준다. 따라서 문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접속부사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접속부사 지도를 통한 독해력 신장 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논문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접속부사 지도만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접속부사를 논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글이 많아서 접속부사의 지도만으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속부사 지도가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비록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접속부사의 기능 지도는 그것을 지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문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해와는 달리 쓰기(작문)에서는 접속부사 지도를 통하여 논리적인 글을 쓰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쓰기에서 접속부사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과 접속부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접속부사가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결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접속부사의 기능을 알고 독해를 하면 글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은희(1992:94)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속어 연구」에서 접속부사¹⁵⁾를 편의상 접속어라 지칭하면서 접속어는 문장의 층위를 넘어서 전체로서의 글의 성립에 관련된 요소로서, 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15) 접속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 독립된 품사로 보는 견해와 부사의 하위범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품사 설정에 대한 고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현행 학교 문법에서 접속부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접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글보다 어려우며, 접속관계는 글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글을 구조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접속어는 문장의 연결 관계, 단락의 연결 관계,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접속부사 지도가 독해력 신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제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접속부사의 기능 및 분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자는 다음의 몇몇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접속부사의 종류 및 기능을 재분류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도하였다.

우선 손동인(1985:179~183)은 문장 접속의 형태를 8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손동인의 분류는 ‘보족’을 제외하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지도하는 용어 및 분류 체계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 1) 순접의 관계는 전문의 특정 부분을 후문이 인계하여, 그 특정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접속 관계를 말한다.
- 2) 역접의 관계는 전문에서 서술한 사실에 대하여 후문이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으로 접속되는 관계이다. 대체로 역접의 관계로 접속되는 문장은, 그 모두에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등의 접속부사를 놓는 것이 그 통례이다.
- 3) 대등·병렬의 관계는 전문에서 서술한 내용과 대등한 자격으로 후문이 접속된다. 또 후면에서 전문 내용에 대하여 반복하거나 대비하여 서술하는 문장의 접속이 그것이다. 대체로 이 관계의 접속에서는

후문 모두에 ‘또는, 및, 혹은, 혹시는, 오히려’ 등의 접속부사를 놓는다.

- 4) **원인·결과 관계**는 전문이 후문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그와는 반대로 후문이 전문의 원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과 문장과의 접속관계이다. 대체로 전문이 후문의 원인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에는 후문 모두에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로’ 등의 접속부사를 놓는다. 그리고 후문이 전문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후문 모두에다 ‘왜냐 하면, ~라는 것은, 그 까닭은’ 등의 접속부사를 놓는다. 그리고 후문의 종결은 ‘때문이다’로 맺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방법이다.
- 5) **첨가·보조의 관계**는 전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후문에서 부연 강조하거나, 불충실한 것을 보충하거나 또는 다른 것을 첨가하는 접속관계이다. 대체로 이런 접속 관계의 문장과 문장에서는, 후문 모두에 ‘단, 더욱, 뿐더러, 그 위에, 그뿐인가?’ 등의 접속부사나 접속부사절을 놓는 것이 그 통례이다.
- 6) **비유·예시의 관계**는 전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후문에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거나 실례를 들어서 예시하는 문장의 접속 관계이다. 대체로 이런 접속 관계에서는 후문의 모두에다 ‘예컨대, 예를 들면, 말하자면, 가령’ 등의 접속부사나 부사절을 놓은 것이 그 통례이다.
- 7) **전환의 관계**는 전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후문에서 전환하여 다른 사실로 서술하는 문장의 접속이다. 대체로 이런 접속 관계의 문장에서는, 후문에다 ‘대저, 그런데, 여기에, 그건 그렇고’ 등의 접속부사나 부사절을 놓는 것이 그 통례이다.
- 8) **요약의 관계**는 전문에서 서술한 것을 후문에서 요약 또는 환언하는 문장의 접속 관계이다. 대체로 이런 접속 관계의 문장에서는 그 모두에 ‘이상으로써, 이상, 요컨대, 바꿔 말하면, 환언하면’ 등의 접속부사나 부사절을 놓는 것이 그 통례이다.

이에 비해 김선영(2003)은 「현대 국어 접속 부사에 대한 연구」에서 접속 부사의 기능 및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접속부사가 문장에서의 각기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는 용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김선영이 연구한 접속부사의 세분화된 용례를 고등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접속부사가 다양한 쓰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김선영(2003:65~86)이 분류한 접속 부사의 분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동격 및 부연 설명 관계 접속 부사 :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즉’은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은 동격 관계를 나타내거나 후행 성분이 선행 성분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가 이유를 나타낼 때는 용언의 부사형이기도 하다. 용언의 부사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접속 대상이 문장에만 한정된 반면에 접속 부사 ‘그러니까’는 문장 내에서 다양한 성분을 연결한다. ‘그러니까’와 ‘즉’은 ‘동격’ 및 ‘부연 설명’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나 이들은 쓰임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비격식적인 글이나 말에서 쓰이며 ‘즉’은 격식적인 글이나 말에서 사용된다.

2) 나열과 부가 관계 접속 부사 : 그리고, 더구나, 더욱이, 또

‘그리고’는 후행 성분이나 문장을 선행 성분이나 문장에 ‘나열’ 관계로, ‘더구나’, ‘더욱이’, ‘또’는 ‘부가’ 관계로 연결한다. 부가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중 ‘또’는 ‘그리고’와 의미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기능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3) 선택 관계 접속 부사 : 또는, 혹은, 내지는

‘또는’, ‘혹은’, ‘내지는’과 그 의미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내지는’은 접속 향이 두 향으로 제한된 반면에 ‘또는’과 ‘혹은’은 나열된 여러 향 사이에 쓰일 수 있다.

- 4) 결과 관계 접속 부사 : 따라서, 그리하여
 ‘따라서’와 ‘그리하여’는 선행 문장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 5) 대립 관계 접속 부사 :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은 주로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이는데, 문장 내에서 성분의 연결도 가능하다.
- 6) 결과, 전제, 대립, 예외 및 조건, 부가, 이유 관계 접속 부사 : 그래서, 그러기에, 그런고로, 그런즉, 이리하여
 ‘그래서’, ‘그러기에’, ‘그런고로’, ‘그런즉’, ‘이리하여’는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의 이유나 근거, 전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 7)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 관계 접속 : 단, 다만
 ‘단’, ‘다만’은 선행문장의 내용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인다. 전제나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으)는데’, ‘-(으)나’ 다음에 쓰이기도 한다.
- 8)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 : 왜냐 하면
 ‘왜냐 하면’은 후행 문장이 선행 문장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왜냐 하면은 그 서술어로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이다’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장재성(1989:160~161)은 접속부사가 문맥의 표지가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접속부사를 독립형, 전환형, 대립형, 누가형, 상술형, 귀결형, 보충형의 7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독립형은 단절적 문장 배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다른 문법학자들의 명명을 곁들였다. 장재성(1989)의 연구는 현장에서의 지도를 고려한 것이어서 현장교육에서의 효용성이 높아 보인다. 장재성의 접속부사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장재성의 접속부사의 분류 체계

접속사 따위			접속구	문법학자들의 명명
독립형	강조형	없음	없음	
	회회형			
	인용형			
전환형	화제 전환형		각도를 달리해서/ 그것은 잠깐 두고	전환형
	서술태도 전환형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아무튼, 한편, 다음으로, 돌이켜보건대, 우선	그리고 보면, 그건 그렇고, 각설(하고)	
	시점 전환형		그건 그렇다 하고	
대립형	반대형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 도, 하지만, 차라리, 그 럴망정, 그렇건만, 그리 기보다는, 반면, 오히려, 도리어	그런가 하면, 그 대 신, 그런다고 하여, 그렇다고 하여	역접형
	대비형	또는, 아니면, 혹은, 그 러든지, 그러하거나, 한 편	달리 말하자면, 어 느 면에서는	대비형, 선택형
	응답형	그렇다, 아니다, 아니, 예	그와 대응되는 것 으로는	응답형
누가형	나열형	게다가, 그리고, 더구나, 또, 곁하여, 곁들여		첨가형, 병렬형
	순차형	그리고는, 그리고서, 또, 또한, 따라서, 뿐더러, 동시에, 아울러, 그리하 여, 다음에, 거기에	그 위에, 그와 동시 에, 그 이후에, 그 뒤에, 이에 따른다 면	순접형
상술형	해설형	왜냐 하면, 왜, 예컨대, 곧, 즉, 말하자면, 환언 하면, 가령	~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후자는, 하 나는, 첫째는, 둘째 는, 바꿔 말하면	동격형, 동렬형, 반복형, 부연형
	해결형	곧, 즉	그 방법으로는, 문 제의 핵심인즉, 다	

			시 말해서	
	분석형	내용인즉, 사실인즉, 실 은	그 내용인즉, 그 원 인인즉	
	증명형	실제로, 가령	보기를 들면, 그 증 거로는, 그에 대하 여, 이에 관하여는	증명형
귀결형	요약형	요컨대, 요는, 결국, 곧, 어찌보면	요약하건대, 핵심인 즉슨	요약형
	개괄형	위와 같음	더 넓게 보면, 더 크게 보면, 그런 이 유로	
	결론형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 리하여, 그러니, 그런다 면, 그런데서, 그래서	그렇게 하여, 그렇 게 된다면	결과형, 순접형
	재강조형	그렇다, 요는	거듭 말하거니와, 새삼 강조하거니와, 다시 되풀이하거니 와	인과형
보충형	논지 보충형		그 중에서, 그 중에 도	한정형
	근거 보충형	또, 또한, 그리고, 왜냐 하면, 단, 다만, 적어도, 설명, 만약, 특히	곁들여 두거니와, 가능한 한, 될 수만 있으면	첨가형, 보충형, 보설형
	설명 보충형			

장하늘(1993:144~145)은 단락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면서 접속부사를 7가지로 정리하였다. 장하늘의 접속부사 분류 및 기능은 장재성(1989)의 대분류와 동일하다. 장하늘은 장재성과는 달리 세부적인 분류를 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접속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 용이하다. 장하늘의 접속부사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상술형** : 곧, 즉, 이를테면, 말하자면, 예컨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왜냐 하면
- 2) **귀결형** :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따라서, 요컨대
- 3) **누가형** : 그리고, 그리하여, 또, 또한, 혹은
- 4) **대립형** : 그러나,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 5) **보충형** : 더욱이, 오직, 단, 다만
- 6) **전환형** :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아무튼, 한편, 다음으로
- 7) **독립형** : 이음말이 없음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는 그 내용이 광범하여 본 연구자가 짧은 연구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기능 및 용법을 모두 지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현장 교육에서 접속부사의 다양한 용법을 모두 지도할 만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장재성(1989)과 장하늘(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접속부사의 기능을 8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2> 접속부사의 분류 및 기능

분 류	기 능	접속부사
전환형	새로운 내용을 연결	그런데, 그러면, 한편, 어쨌든, 아무튼
반대형	앞의 내용과 일부분 또는 전체가 반대가 되는 내용을 연결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반면에
첨가형	앞의 내용과 대등한 내용을 연결	그리고, 또, 또한, 게다가, 더구나
상술형	앞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연결	즉, 말하자면, 예컨대, 가령

압축형	앞의 내용을 압축, 추상화하여 연결	즉, 말하자면
귀결형	앞의 내용의 결과나 요약한 내용을 연결	결국, 요컨대
인과형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연결	그러므로, 이리하여, 그리하여, 그러니, 그래서, 따라서
보충형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 예외, 가정, 강조 등의 내용을 연결	왜냐 하면, 단, 다만, 설령, 만약, 특히

그리고 본 연구자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상), (하) 및 1994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문제의 설명적인 글에 나타나는 접속부사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접속부사이더라도 출현 빈도가 미미한 것은 제외하였다. 접속부사의 출현 빈도는 <표3>과 같았다.

<표 3> 접속부사의 출현 빈도

접속부사	총횟수	비율(%)	국어(상)	국어(하)	언어영역 문제
가령	9	0.65	0	0	9
게다가	13	0.94	2	0	11
결국	34	2.46	0	10	24
그래도	40	2.90	6	18	16
그래서	19	4.27	5	9	45
그러나	257	18.61	48	27	182
그러니	33	2.39	8	1	24
그러면	43	3.11	12	9	22
그러므로	52	3.77	3	11	38
그런데	73	5.29	7	7	59
그렇다면	20	1.45	0	4	16
그렇지만	19	1.38	2	1	16

그리고	151	10.93	22	25	104
그리고는	4	0.29	0	1	3
그리하여	18	1.30	0	1	17
다만	40	2.90	6	9	25
다음에	13	0.94	2	4	7
다음으로	3	0.22	0	0	3
단	2	0.14	0	0	2
더구나	14	1.01	0	9	5
따라서	81	5.87	1	12	68
또는	41	2.97	0	14	27
또한	35	2.53	9	8	18
만약	16	1.16	0	0	16
말하자면	16	1.16	2	6	8
반면	7	0.51	0	0	7
반면에	12	0.87	0	0	12
설령	5	0.36	0	1	4
아무튼	2	0.14	1	0	1
아울러	6	0.43	0	0	6
어쨌든	13	0.94	4	1	8
예컨대	8	0.58	0	1	7
왜냐 하면	14	1.01	1	0	13
요컨대	1	0.07	0	1	0
우선	26	1.88	3	4	19
즉	42	3.04	16	4	22
특히	31	2.24	14	4	13
하지만	49	3.55	4	25	20
한편	49	3.55	7	7	35
혹은	30	2.17	5	5	20
합계	1,381	100	190	239	952

접속부사이더라도 <표3>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제지에 출현되지 않거나 출현빈도가 낮은 것

이다.

어쨌든 접속부사는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접속부사에 주의를 기울이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면 문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접속부사는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표지를 제공할 뿐이지 접속부사에 의거하여 문장의 연결 관계를 기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접속부사는 문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표지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지도하였다.

4. 중심내용 파악 지도 전략

형식단락은 하나의 문장 또는 그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형식단락을 구성하는 문장 중에는 그 단락의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그 내용을 지지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형식단락을 대표하는 내용을 중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내용은 형식단락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며 그 단락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 국어교육학사전(1999)은 글의 중요한 정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는 중심내용 외에 요지, 주제, 요약 등이 있는데, 이들 용어간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중심 문장에 대해서는 주제문, 소주제문, 주제, 화제, 주지, 요지, 중심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심문장을 포괄하는 내용을 중심내용이라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내용을 세부내용,

뒷받침내용 등으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락을 대표하는 내용을 중심내용, 그것을 보조해 주는 내용을 뒷받침 내용이라고 명명하였다. 단락의 중심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에서 굳이 주제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형식단락 단위로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데 형식 단락 중에는 주제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김규선(1985)은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중심 글월'과 '돕는 글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 1) 대문에는 가장 중요한 글월이 있다.
- 2) 이 글월 속에 대문의 중심 생각이 들어 있다.
- 3) 대문의 중심 생각이 들어 있는 글월을 중심 글월이라 한다.
- 4) 중심 글월은 대문의 처음이나 끝에 있다.
- 5) 중심 글월을 제외한 다른 글월을 돕는 글월이라 한다.
- 6) 돕는 글월은 중심 글월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 7) 중심 글월의 뜻은 넓고, 돕는 글월의 뜻은 좁고 자세하다.

김규선(1985)에 의하면 중심내용은 단락의 중심생각이 들어 있고, 다른 문장보다 진술 범위가 넓은 글이다. 이에 비해 뒷받침 내용은 중심내용을 도와 주는 기능을 하고 그 서술 범위는 좁고 자세하다.

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에서도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6) 교육부(1993 : 189~190),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 5차 교육과정의 국어(상) 교과서에서 '단락'은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원이 있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국어(상)·(하) 교과서에는 이와 같이 단락의 구성

- 1) 한 단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모여서 완전해진다.
- 2) 주제문은 추상적 진술, 일반적 진술의 형식을 취하고 뒷받침문은 구체적 진술, 특수진술로 이루어진다.
- 3) 뒷받침 문장은 구체화나 상세화, 예시, 인용, 이유 제시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심내용은 그 단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술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고, 다른 내용을 포괄한다. 이에 반해 뒷받침 내용은 중심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 밝히거나 도와주는 것으로서 진술 범위가 좁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독해에서 중심내용 파악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Baumann의 중심내용 찾기 전략을 들 수 있다. Baumann(1986)은 중심내용 찾기 전략의 위계 모형을 9단계로 제시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Baumann의 중심내용 찾기 전략의 위계 모형 9단계

단계	과제 수준	구체적 내용
1	단어	열거된 단어 목록에서 중심내용 파악
2	문장	몇 개의 문장에서의 중심내용 파악
3	단락(명시적)	단락에서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 파악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4	단락(묵시적)	단락에서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 파악
5	짧은 글(명시적)	짧은 글에서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 파악
6	짧은 글(묵시적)	짧은 글에서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 파악
7	짧은 글(명시적)	짧은 글에서 중심내용 개요 파악
8	짧은 글(묵시적)	짧은 글에서 중심내용 개요 파악
9	긴 글	긴 글에서 중심내용 파악

본 연구자는 Baumann의 중심내용 파악 위계의 9단계 중에서 3, 4단계만으로도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 3, 4단계, 즉 하나의 형식단락을 지도 범주로 하였다.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 대한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Baumann(1986)의 ‘요약하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Baumann은 유능한 독자들은 교재를 요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사용한다고 하였다.¹⁷⁾

- 1) 삭제 규칙 : 불필요한(사소한 그리고 중복되는) 자료를 삭제하기
- 2) 상위 규칙 : 항목들 또는 행위들의 목록을 상위 용어 또는 사태로 대체하기.
- 3) 선택 규칙 : 교재의 중심내용 진술을 선택하기.
- 4) 구성 규칙 : 중심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중심내용 진술을 구성하기

Baumann(1986)의 이 ‘교재 요약하기’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독

17) 유양희(2002:3), 재인용

자가 긴 글을 짧게 요약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이는 덜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하위 내용을 상위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요약하기 방법은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교재 내용을 더 압축적으로 학습하여 내용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독해력에 비해 어려운 글을 독해할 경우에 독자는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요약하기 규칙을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불필요한(사소한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가, 어떤 항목들 또는 행위들의 목록이 상위 용어 또는 사태로 대체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중심내용인가 등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임두순(1989 : 66~67)은 중심내용이 위치하는 단서 8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맨 첫 자리(first position),
- 2) 맨 끝줄(last position),
- 3) 예 들기(example),
- 4) 반복하기(repetition),
- 5) 핵심단어나 숫자(key words/number),
- 6) 소제목(subheading),
- 7) 두 번째 줄(second position),
- 8) 요점 정리(highlighting)

또한 임두순(1989 : 66~67)은 이러한 단서들이 사용되는 빈도로는 예 들기 68%, 반복하기 37%, 핵심단어나 숫자 25%, 소제목 25%, 요점정리에

12%, 무표지 5.1%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단락에서 중심내용을 알리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심내용의 위치는 맨 첫문장 53%, 두 번째 문장 16%, 끝 문장에 19%¹⁸⁾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두순(1989)의 연구는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관심을 더 가지거나 덜 가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또한 중심내용이 나타나는 위치와 빈도를 고려할 때 단락 안의 각 문장에 대한 관심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글을 읽을 때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끝 문장에 그 밖의 다른 문장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박경숙 외 2인(1988, 1989)은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 I, II」에서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밖에도 조선희(1996), 김규선(2000), 정진영(2000) 등이 중심내용 파악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심내용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글의 구성 방식을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무괄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중심내용이 놓이는 위치에 따른 단락의 구성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두괄식은 글의 중심내용이 글의 맨 앞에 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진술해 나가는 형태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중심내용이 단락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미괄식은 중심내용이 글의 끝 부분에 있다. 중심내용을 말하기 전에 앞에서 중심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술을 하고, 끝 부분에 가서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18) 첫 자리, 끝자리(줄),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문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도 내용 전달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용어를 문장으로 통일하였다.

중괄식은 중심내용이 글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앞부분에서는 중심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내용을 진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심내용을 단락의 중간 부분에서 진술한다. 그런 다음 뒷부분에 중심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뒷부분의 내용은 대개 강조나 부연인 경우가 많다.

양괄식은 단락의 처음과 끝 모두 중심내용을 담고 있는 구성 방식이다. 단락의 첫머리에서 중심내용을 진술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단락의 중간에 진술한 다음 단락의 끝에 가서 중심내용을 다시 진술한다. 처음과 끝에 진술되는 중심내용은 동일하지만 대개 표현을 달리 하여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다.

무괄식은 중심내용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중심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각 문장은 중심내용과 관련된 하위 개념이 주로 진술되어 있다.

중심내용 파악 전략은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의 진술 방식,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의 관계, 중심내용의 위치, 문단의 구성 방식 등을 통해 중심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중심내용과 관련된 구조표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심내용과 관련된 구조표지를 알고 있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중심내용 파악 전략은 연구자에 따라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을 뿐,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판별해 내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중심내용 파악 전략 중에서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했다. 다음 전략은 학생들이 독해를 할 때 비교적 용이하게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학생들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글의 내용 요소들 간의 관계를 외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중심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글의 구조 지도 전략

- (1) 글의 내용구조는 크게 수집형, 인과형, 문제해결형, 비교대조형으로 나눈다.
- (2) 수집형은 하나의 화제와 그 화제에 대하여 단순히 개념을 관련지어나 열하거나 상술하여 화제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구조의 글이다.
- (3) 인과형은 요소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제 해결형은 문제와 해결의 관계, 비교·대조형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진술되는 구조의 글이다.

나. 문장의 연결 관계 지도 전략

- (1) 문장의 연결 관계는 접속부사를 보면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2) 접속부사가 사용된 문장의 연결 관계는 전환형, 반대형, 첨가형, 상술형, 압축형, 귀결형, 인과형, 보충형의 8가지로 나누어 파악할 수도 있다.
- (3) 단, 접속부사는 문맥을 파악하기 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문장의 연결 관계를 예측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각 문장의 의미가 파악된 다음에 가능하다.

다. 단락의 중심내용 파악 지도 전략

- (1) 중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추상적 진술의 형식을 취하며, 귀결형·반대형·인과형에 이끌리는 문장이나 그 뒤에 위치하는 내용이 중심내용이 놓일 가능성이 높다.
- (2) 뒷받침 내용은 구체적 진술의 형식을 취하고, 상술·예시·인용·이유제시 등으로, 상술형과 보충형 접속부사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 (3) 단락의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끝 문장에 중심내용이 놓일 가능성이 높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장안고등학교 3학년 2개 학급 63명이었다. 부산장안고등학교는 1개 학년이 4개 학반인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서 남녀 공학이다. 학급당 인원은 32명이고 남녀 학생이 같은 반에 편성되어 있다.

3학년 4개 학반 중에 인문사회반은 3개 학반이고 과학기술반은 1개 학반이다. 본 연구자가 담임인 3학년 3반은 담임이라는 공변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인문사회반 2개 학반 중, 실험반은 3학년 4반 학생 32명, 비교은 3학년 2반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대상자가 실험반 32명, 비교반 32명이었으나, 사후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명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실제 실험 대상자는 모두 63명이었다.

학생의 학습태도, 학원 수강,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학생에 대한 관심도 등 실험 대상자의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2.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상 학습 프로그램 투입 전후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의 실시는 학습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에 학생들의 중심내용 파악 능력, 문장의 연결 관계의 이해 정도 및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졌으며, 사후 검사는 학습 프로그램 투입 후의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는 2005년 3월 15일 4교시에 3학년 4반을, 같은 해 3월 16일 5교시에 3학년 2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지에 사용한 글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제집에서 발췌하였으며, 문항은 본 연구자가 출제하고 20여 년의 교육 경력을 지닌 동료 교사 2명의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다.

중심내용 파악 전략의 지도는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4주간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주당 2시간씩 총 8시간을 지도했다. 실험반은 문장의 연결 관계 및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전략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비교반은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 대한 언급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후 검사는 2005년 4월 19일 4교시에 3학년 4반을, 4월 20일 5교시에 3학년 2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3. 실험 자료

실험 자료는 본 연구자가 7차 교육과정의 ‘국어(상), (하) 교과서, 1994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출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제지」의 지문, 「색다른 언어영역 종합편」, 「다다 언어영역 종합편」을 비롯한 언어영역 문제집 5권, 신문 「명칼럼 컬렉션」 1~4편, 「유행 속에 숨어 있는 역사의 비밀(근, 현대편)」, 「옛 선현들의 풍류기, 술 멋 맛」, 「말꼬리 잡는 세계사 공부」, 「천년의 지혜가 담긴 109가지 이야기」, 「성공을 위해 밀줄 굿고 싶은 말들」,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일곱 가지」,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등의 책에서 발췌하였다.

실험 자료는 글의 내용구조가 비교적 명료하고, 구조표지를 통하여 문장의 연결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발췌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이 각기 획득한 평균 점수에 대해서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 11.5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위하여 각 집단의 평균 성적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하였다. 즉, 실험반과 비교반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고, 사후 검사를 통해 평균 성적에 대한 유의확률을 검증하였다.

IV. 실제 지도 방안

1. 교수-학습 모형

본 연구자가 이 실험을 위해 사전에 문헌연구를 한 것은 앞에서 진술한 ‘글의 내용구조 지도 전략’, ‘문장 연결 관계 지도 전략’, ‘중심내용 파악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채택한 교수-학습 전략은 Baumann(1986)이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서 사용한 직접 교수 방법이였다.

이 직접 교수 방법은 수업 진행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교육현장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모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학생 활동 중심의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 직접 교수법은 학생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최근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추세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이 직접 교수 방법은 그 유용성이 높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 직접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했다.

직접 교수 방법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된다.(박경숙 외 2인, 1988)

(가) 안내 : 수업의 목적을 인식시킨다.

(나) 예 : 무엇에 관해서 배울 것인지 확실하게 한다. ‘예’를 제시함으로써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글속에 어떻게 존재하며, 그것이

읽기 자료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 (다) 직접적 교수 : 교사가 '목표 기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설명하되, 모델링과 예시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 (라) 교사 주도적 적용 : 기능 획득의 책임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옮겨진다. 여기서는 교사가 여전히 활동을 주도하지만 교사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목표 기능'이 포함된 글을 읽어가고 교사는 학생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정해 준다.
- (마) 독립적 연습 : 학생 스스로 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글을 읽고 '목표 기능'을 수행한다.

2. 글의 내용구조 지도안

이 직접 교수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독해력을 검증하는 연구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박경숙 외 2인(1988)은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I)」에서 직접 교수 방법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는 박경숙 외 2인이 개발한 그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수업을 전개하였다. 박경숙 외 2인이 수업 모형은 전개 과정이 간단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단기간에 습득시키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예시적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집형 구조, 인과형 구조, 문제해결형 구조, 비교·대조형 구조 순으로 글의 내용구조를 지도하였다.

가. 수집형 구조의 예시적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

교사 : 글의 내용구조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수집형, 인과형, 문제해결형, 비교대조형의 네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며, 이 네 가지의 글의 내용구조를 차례대로 학습하게 될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먼저 수집형 구조의 글을 학습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나) 예시문 제시

교사 : 하나의 형식단락의 글을 제시하고, 제시된 글은 수집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집형 구조는 하나의 화제와 그것을 지지하는 세부내용을 모아놓거나 나열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화제와 세부내용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시문 1

①우리 민속에는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가 많다. ②명절이나 백일·돌 때 이웃에 음식을 돌린다. ③용왕제·기우제 등의 동제를 지낸 뒤에는 음복에 앞서 잡귀에게도 나눠 먹인다는 뜻으로 길목에 음식을 놓아두기도 했다. ④가을에 감을 딸 때 지나던 까치가 파먹을 수 있게끔 한두 개를 꼭 남겨 놓는다.

(다) 직접적 교수

교사 : 다 같이 이 글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어 보세요.

교사 : 이 글에서 화제가 들어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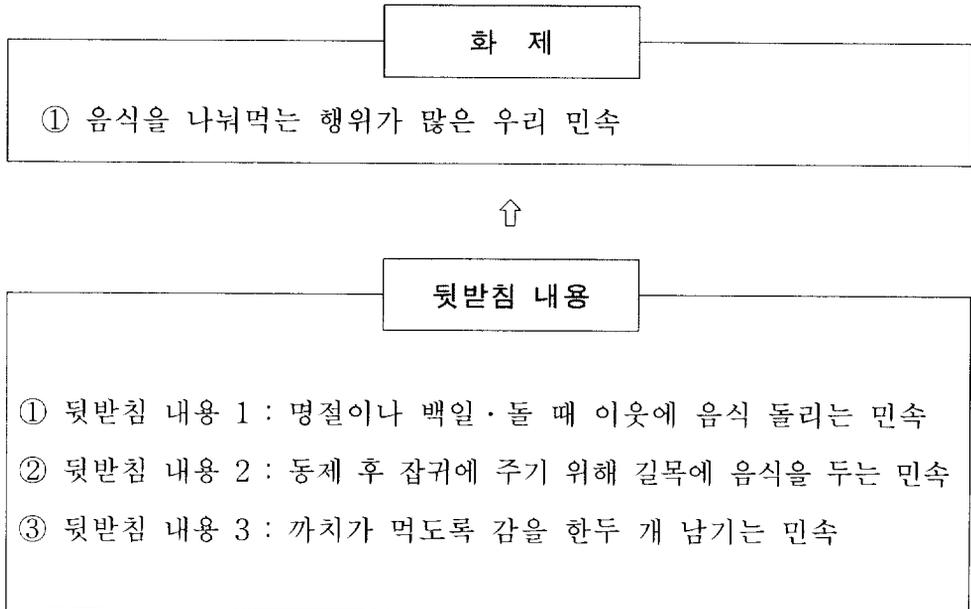
교사 :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그 화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들이 무엇인지 문장 번호를 말해 보세요. (학생이 대답하면 교사는 칠판에 화제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개념들을 도식화한다.)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이것은 중심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들이지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에는 화제와 뒷받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교사 : 수집형 구조는 이처럼 하나의 화제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

되는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라) 교사 주도적 적용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수집형 구조의 글을 제시한다.

제시문 2

- ①학생들의 책 광고나 영화 광고 또는 제과점 광고가 들어 있다.
- ②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주부들의 시장바구니 속에도 조간신문 사이에 들어 있던 전단 광고물이 들어 있기 일쑤다.
- ③이렇게 귀에 들리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광고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④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광고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여 하나의 대중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사 : 이 글을 마음속으로 읽고 화제라고 생각하는 문장 번호에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수행한다.

교사 : 화제가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맞았어요. 화제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화제와 뒷받침 내용을 칠판에 도식화하여 이해시킨다.

뒷받침 내용

- ① 뒷받침 내용 1 : 학생들의 책가방 속에 들어 있는 광고
- ② 뒷받침 내용 2 : 주부들의 시장바구니에 들어 있는 광고
- ③ 뒷받침 내용 3 : 듣는 것, 보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화 제

- ④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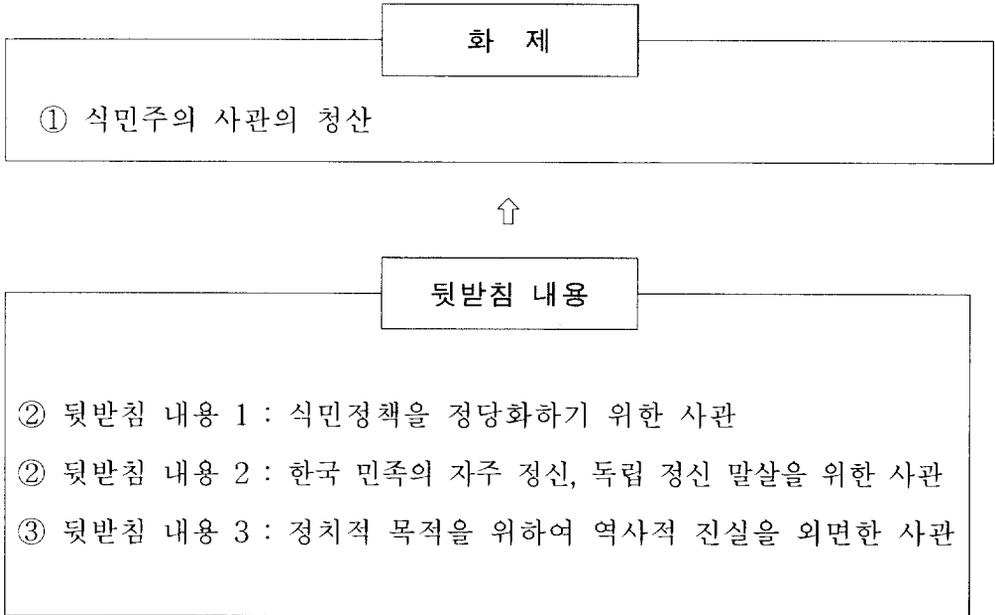
(마) 독립적 연습

교사 :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수집형 구조의 글을 나눠 주고, 학
번과 이름을 쓴 후, 화제가 들어 있는 문장은 번호에 √를, 화제
를 드러내기 위한 뒷받침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장에는 ○를 한 다
음, 화제와 뒷받침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다.

글의 종류 : 수집형	학번 :	이름 :
<div data-bbox="559 371 756 42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제시문 3</div> <p data-bbox="296 466 1112 875"> ①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과제는 식민주의 사관을 청산하는 일이다. ②식민주의 사관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일제가 한국에 대한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한국 사관을 의미한다. ③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한국 민족의 자주 정신, 독립 정신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것이었다. ④이것은 한국사의 객관적 진리를 존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치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p>		
<p data-bbox="210 932 519 961"><글의 구조 정리하기></p> <p data-bbox="210 990 1085 1018">화제 : _____</p> <p data-bbox="210 1047 1085 1075">뒷받침 내용 ① : _____</p> <p data-bbox="210 1104 1085 1132">뒷받침 내용 ② : _____</p> <p data-bbox="210 1161 1085 1190">뒷받침 내용 ③ : _____</p>		

학생 : 과제를 실행한다.

교사 : 학생들이 실행한 과제에 대하여 실행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잘못된 학생들의 과제물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글의 구조를 다시 주지시킨다.



나. **인과형** 구조를 지도하기 위한 예시적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

교사 : 이번에는 글의 네 가지 내용구조 중 **인과형** 구조를 학습하게 될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나) 예시문 제시

교사 :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형식단락의 글을 하나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된 글은 **인과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인과형** 구조는 요소 또는 명제 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지는 구조로 된 것이며,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제시문 4

①물량주의적 가치관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이상화되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과 절차의 논리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마련이다. ②왜냐 하면, 어떠한 방법을 구사했든지 간에 일단 그러한 가치를 획득한 인간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③더욱이 배금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이상의 노예나 도구가 되기를 서슴지 않게 된다. ④그 결과 인간은 목적의 지위에서 수단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욕망에 따른 경쟁이 가열되며 인간의 가치가 천시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다) 직접적 교수

교사 : 다 같이 이 글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어 보세요.

교사 : 이 글에서 '결과'가 들어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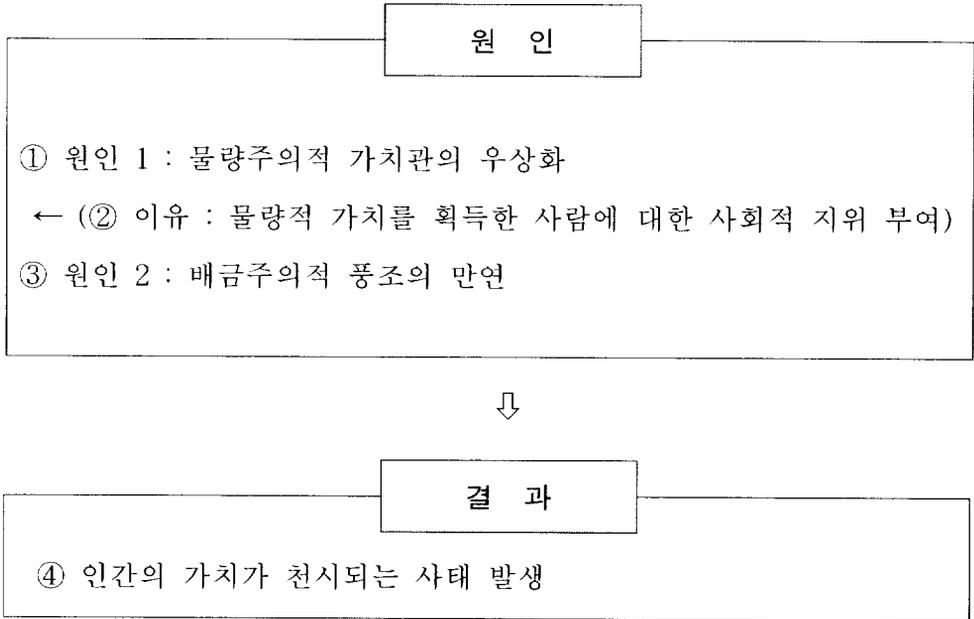
교사 :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들어있는 문장 번호를 말해 보세요. (학생이 대답하면 교사는 칠판에 화제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개념들을 도식화한다.)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이것은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에는 원인과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교사 : 인과형 구조는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라) 교사 주도적 적용

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인과형 구조의 글을 제시한다.

제시문 5

①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지역 간의 격차를 초래했다. ②즉,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 교육, 생활, 문화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③이러한 불평등한 지역적 격차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연대의

식을 감퇴시키고, 도시 집중화를 초래하였다. ④그리하여 여러 가지의 도시적 병리 현상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교사 : 이 글을 마음속으로 읽고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 번호에 √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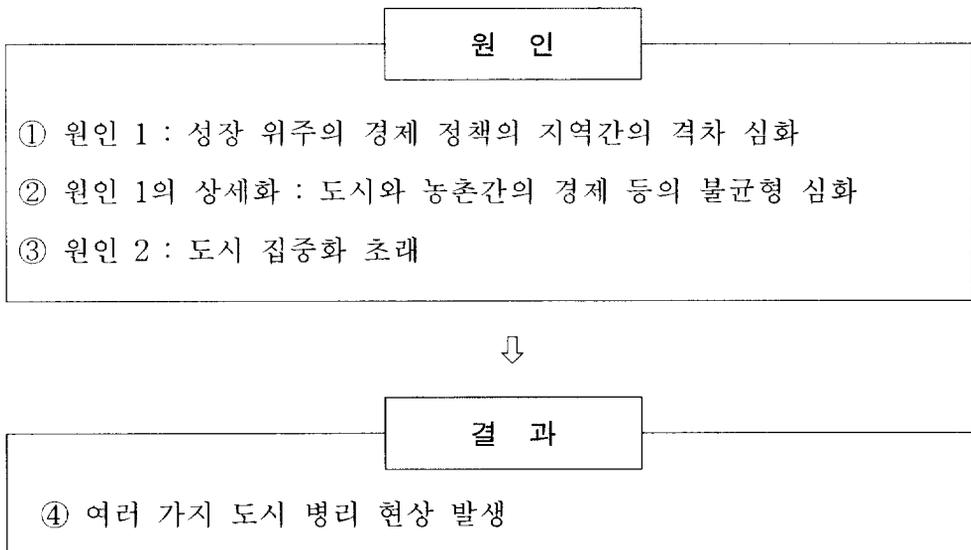
교사 : '결과'가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맞았어요. '원인'이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원인과 결과를 칠판에 도식화하여 이해시킨다.



(마) 독립적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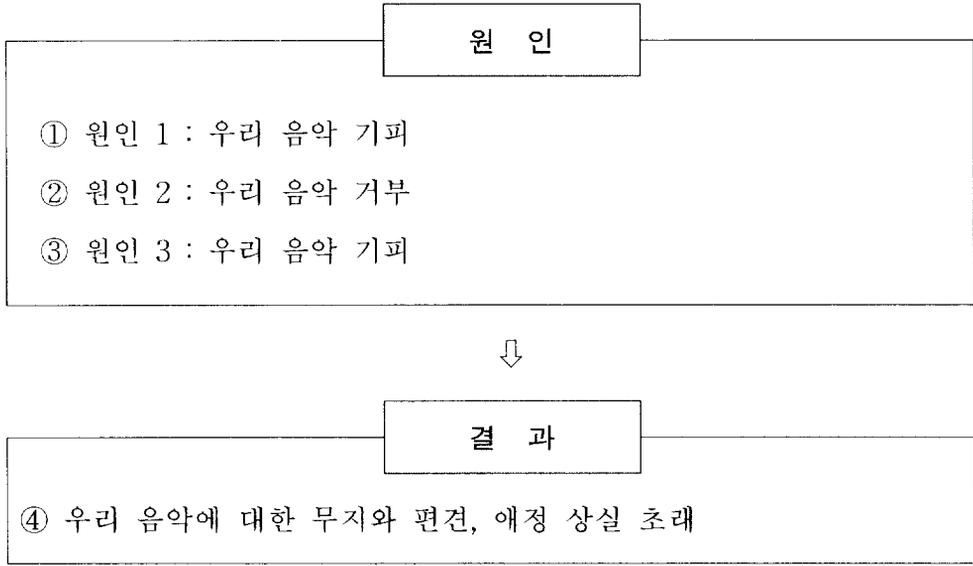
교사 :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인과형 구조의 글을 나눠 주고, 학번과 이름을 쓴 후, '결과'가 들어 있는 문장은 번호에 √를, '원인'이 들어 있는 문장에는 ○를 하게 한 다음,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도록 지시한다.

글의 종류 : 인과형	학번 :	이름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제시문 6</div> <p>①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음악을 기피하고 있다. ②특히, 우리 음악을 예술성이 낮은 저급한 음악으로 치부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③또 어떤 이들은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 해도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피하기도 한다. ④이로 인해 우리 음악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무지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애정의 상실이 초래되었다.</p>		
<p><글의 구조 정리하기></p> <p>원인 ① : _____</p> <p>원인 ② : _____</p> <p>원인 ③ : _____</p> <p>결과 : _____</p>		

학생 : 과제를 실행한다.

교사 : 학생들이 실행한 과제에 대하여 실행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잘못된 학생들의 과제물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글의 구조를 다시

주지시킨다.



다. **문제해결형** 구조를 지도하기 위한 예시적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

교사 : 이번에는 글의 네 가지 내용구조 중 문제해결형 구조를 학습하게 될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나) 예시문 제시

교사 : 각 문장에 번호를 매긴 형식단락의 글을 하나 제시한다. 제시된 글은 문제해결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문제해결형 구조는 요소 또는 명제 간에 문제점과 해결책의 관계로 이루지는 구조로 된 것이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제시문 7

①지금 혼도를 지극히 천한 직책이라 하여 빈곤하고 자금이 없는 자에게만 그 자리를 주어 기한이나 면하게 하니, 혼도가 된 사람도 한갓 교생을 끌어내어 제 배나 채울 뿐,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거나 하는가? ②이렇게 되어서 인재를 기르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③ 이제 계책으로서, 무엇보다도 팔도의 감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통고하여 삼 년마다 한 번씩 그 고을 사람 가운데 경사에 능통하고 학문의 향방을 어느 정도 알아서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뽑아 그 명단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는 이를 수합하여 이조로 보내면, 이조는 그 명부를 검토하고 공론을 널리 받아들여 다시 더 정밀하게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직접적 교수

교사 : 다 같이 이 글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어 보세요.

교사 : 이 글에서 '문제점'이 들어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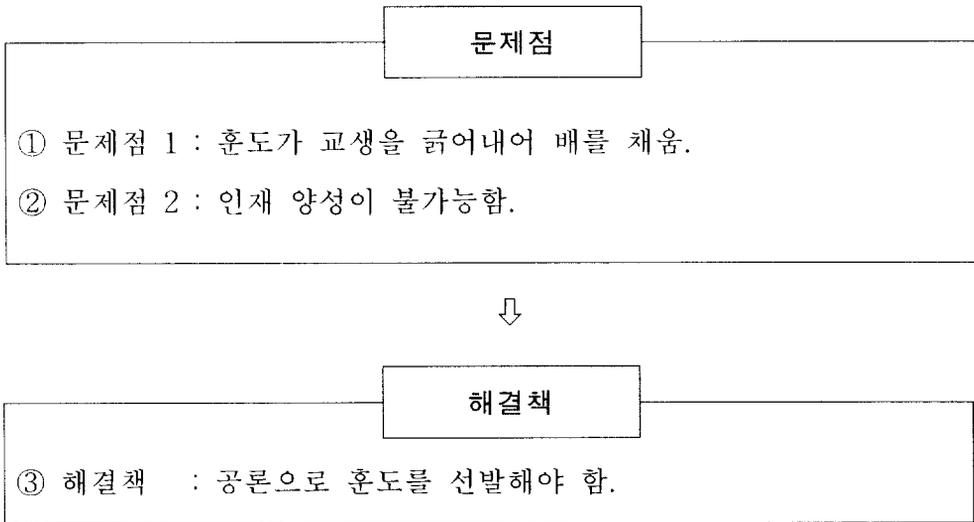
교사 :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그 '해결책'은 몇 번이지요. (학생이 대답하면 교사는 칠판에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식화한다.)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이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에는 문제점과 해결책이 정리되어 있다.)



교사 : 문제해결형 구조는 이처럼 ‘문제점’과 ‘해결책’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라) 교사 주도적 적용

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문제해결형 구조의 글을 제시한다.

제시문 8

①경제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②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여 문화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③또한 공해를 일으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④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경제 발전의 이익과 그 대가의 경중을 면밀히 비교 평가해야 한다.

교사 : 이 글을 마음속으로 읽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문장 번호에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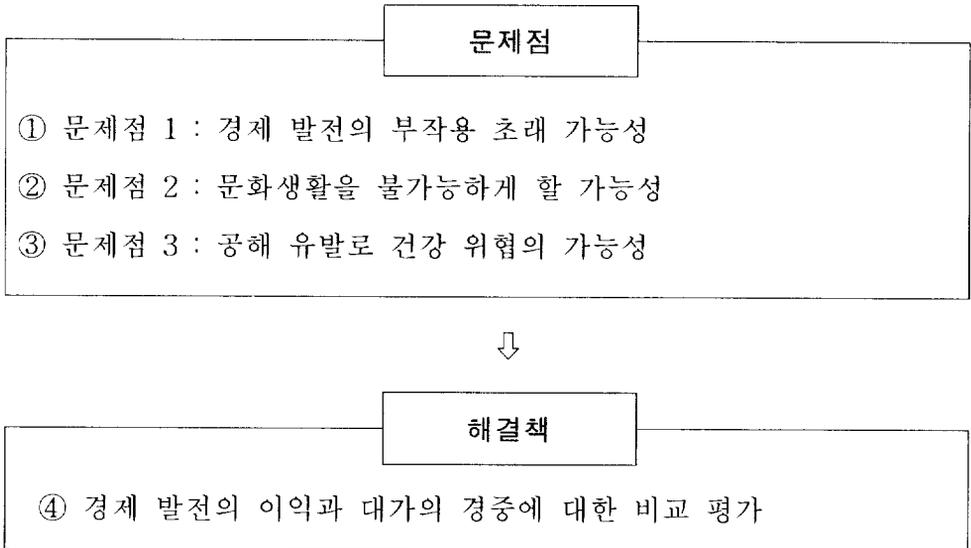
교사 : 문제점이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맞았어요. ‘해결책’이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문제점’과 ‘해결책’을 칠판에 도식화하여 이해시킨다.



(마) 독립적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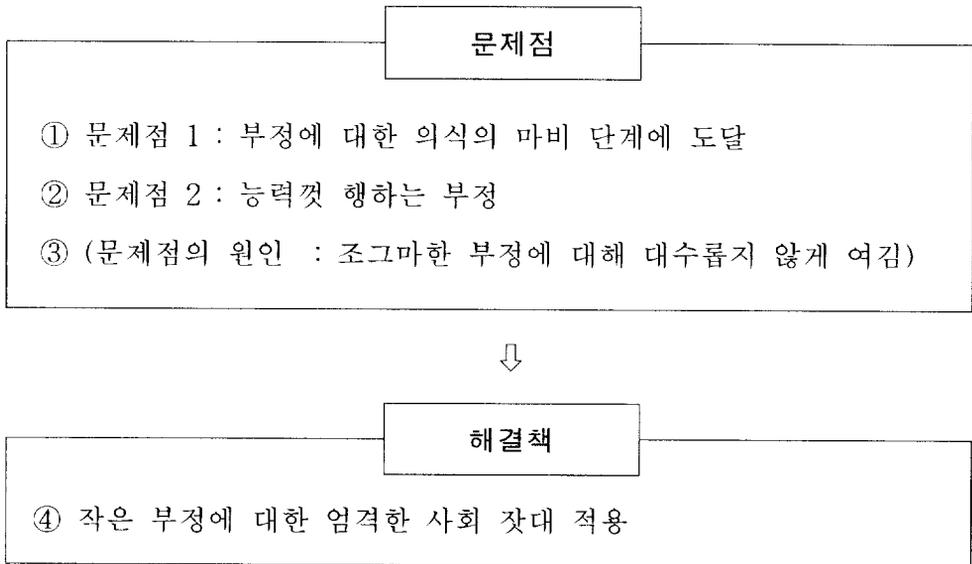
교사 :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문제해결형 구조의 글을 나눠 주고, 학번과 이름을 쓴 후, '결과'가 들어 있는 문장은 번호에 √를, '원인'이 들어 있는 문장에는 ○를 하게 한 다음,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도록 지시한다.

글의 종류 : 문제해결형	학번 :	이름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width: 1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제시문 9 </div>		
<p>①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근자에 와서 우리 사회에는 부정에 대한 의식이 마비 단계에 이른 것 같다. ②작은 능력을 가진 자는 작은 부정을 하고 큰 능력을 가진 자는 큰 부정을 할 뿐 능력껏 부정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③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부정은 조그마한 부정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④이렇게 본다면 부정을 막는 길은 작은 부정에 대해 사회의 잣대가 엄격해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글의 구조 정리하기></p> <p>문제점 ① : _____</p> <p>문제점 ② : _____</p> <p>문제점 ③ : _____</p> <p>해결책 : _____</p>		

학생 : 과제를 실행한다.

교사 : 학생들이 실행한 과제에 대하여 실행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잘못

된 학생들의 과제물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글의 구조를 다시 주지시킨다.



라. **비교대조형** 구조의 글을 지도하기 위한 예시적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

교사 : 이번에는 글의 네 가지 내용구조 중 비교대조형 구조를 학습하게 될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나) 예시문 제시

교사 : 각 문장에 번호를 매긴 형식단락의 글을 하나 제시한다. 제시된 글은 비교대조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비교대조형 구조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진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찾아야 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제시문 10

진정한 자존심이나 사이버 자존심이나 간에, 모두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성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한다. 전자는 영원한 삶에, 후자는 그날그날의 세속적 삶에 집념한다. 전자는 자신의 세계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체적이며, 후자는 자신의 대외적인 체면과 남에게 전시되는 효과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타율적 존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다) 직접적 교수

교사 : 다 같이 이 글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어 보세요.

교사 : 이 글에서 ‘비교·대조하는 대상’은 무엇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존심’과 ‘사이버 자존심’의 유사한 점은 무엇이지요. (학생이 대답하면 교사는 칠판에 유사점을 도식화한다.)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존심’과 ‘사이버 자존심’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이지요. (학생이 대답하면 교사는 칠판에 차이점을 도식

화한다.)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정리되어 있다.)

비교·대조되는 대상

진정한 자존심 ↔ 사이버 자존심



비교·대조되는 내용

유사점 :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된 것

차이점 ① : 진정한 자존심은 영원한 삶에 집념함.

↔ 사이버 자존심은 그날그날의 세속적인 삶에 집념함.

차이점 ② : 진정한 자존심은 주체적 존재임.

↔ 사이버 자존심은 타율적 존재임.

교사 : 비교대조형 구조는 이처럼 유사점 또는 차이점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라) 교사 주도적 적용

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비교 또는 대조되는 구조의 글을 제시한다.

제시문 11

연극은 일정한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게 되는 남녀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기 때문에 영화에서와 같은 행동의 다양성을 창출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영화에서 배우들과 그들의 연기가 클로즈업에 의해 크게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극은 명확하게 한계가 그려진 고정된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연기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사 : 이 글을 마음속으로 읽고 비교 또는 대조하고 있는 대상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수행한다.

교사 : 비교 또는 대조되는 대상이 무엇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맞았어요. 비교되고 있나요? 대조되고 있나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대조되는 내용을 칠판에 도식화하여 이해시킨다.

대조되는 대상

연극 ↔ 영화



대조되는 내용

차이점 : 연극은 연기의 폭이 제한됨

↔ 영화는 다양한 행동을 창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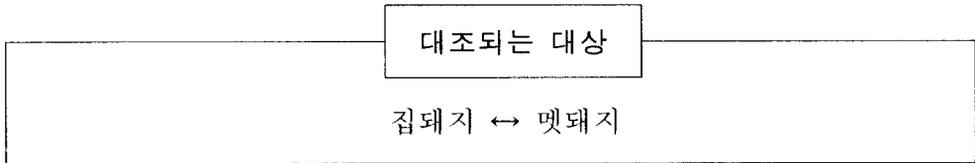
(마) 독립적 연습

교사 : 비교 또는 대조형 구조의 글을 나눠 주고, 학번과 이름을 쓴 후,
비교 또는 대조되는 대상과 내용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것을 정리하도록 지시한다.

글의 종류 : 비교 · 대조형	학번 :	이름 :
<p>제시문 12</p> <p>집돼지와 멧돼지는 여러모로 다르다. 집돼지는 큰 것도 무게가 2백 킬로그램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 피부가 거칠고 지저분하며, 살에는 비계가 많다. 고기의 맛이나 질긴 정도는 보통이다. 그러나 양순하고 길이 들어 있다. 이에 비하여 멧돼지는 몸무게가 집돼지의 두 배 내지 세 배다. 멧돼지는 수풀 속에서 자유롭게 뛰고, 끊임없이 목욕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기 때문에 살이 연하고 비계가 없으며 맛이 있다. 그러나 집돼지와는 달리 멧돼지는 길이 들지 않아 매우 사납다.</p>		
<p><글의 구조 정리하기></p> <p>비교 또는 대조되는 대상 : _____</p> <p>비교 또는 대조되는 내용 : _____</p>		

학생 : 과제를 실행한다.

교사 : 학생들이 실행한 과제에 대하여 실행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잘못된 학생들의 과제물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글의 구조를 다시 주지시킨다.



대조되는 내용	
<u>집돼지</u>	<u>멧돼지</u>
· 몸무게 :	큰 돼지도 200kg 이내 ↔ 집돼지의 두 배 내지 세 배
· 피부 :	거칠고 지저분함 ↔ 깨끗하고 부드러움
· 비계 :	많음 ↔ 적음
· 고기의 맛 :	보통 ↔ 맛이 있음.
· 고기의 질 :	보통 ↔ 연함
· 성질 :	양순함 ↔ 사나움

3. 문장 연결 관계 지도안

접속부사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먼저 접속부사의 기능과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접속부사로 연결된 두 문장을 제시하여 연결 관계를 지도했다.

단, 학생들이 접속부사의 기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즉, 접속부사는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가 되는 것이지, 접속부사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인식시켰다.

글의 내용구조 지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안 설계를 하였으며, 접속부사 지도의 예시적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

교사 :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조표지 중 대표적인 것이 접속부사이다. 접속부사는 그 기능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전환형, 반대형, 첨가형, 상술형, 압축형, 귀결형, 인과형, 보충형의 8가지로 나누며, 이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나) 예시문 제시

교사 : 두 개의 문장이 각각 ‘그런데, 그러면, 한편, 어쨌든, 아무튼’의 다섯 가지 접속부사로 연결된 글을 제시하고, 앞 문장에 대하여 뒷문장은 전환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환형에서 뒷문장은 앞문장의 화제와는 다른 새로운 화제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며,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시문 13

1. 그 날도 그가 처방을 써 줘서 아버지께서 약국에 가서서 약을 지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태껏 그 약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능하고 긴절한 활동은 지식을 획득하는 그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3. 그랜트 장군의 군대는 좌우 양쪽과 뒤에서 맹렬히 남군을 추격했다. 한편 세리단 장군이 이끄는 기병대는 적이 도망가는 길을 끊고 철도를 파괴하여 군수 물자를 실은 열차를 포획했다.
4. 안다고 그녀인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쨌든 노인이 이제라도 그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5. 현재 그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동정 때문일까. 아무튼 나는 지금 그녀에게 위로보다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다) 직접적 교수

교사 : 다 같이 이 글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어 보세요.

교사 : 1번 글에서 그런데 앞 문장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아버지가 약을 지은 것'.

교사 : 1번 글에서 '그런데' 뒤 문장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약병이 보이지 않는 것'.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아버지께서 약을 지은 것’과 ‘약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연결될 때 사용합니다. 2번 문장에서 ‘그러면’ 앞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지식 획득의 필요성’입니다.

교사 : 뒤 문장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지식 획득의 필요성’과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서로 밀접하게 이어지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이지요? 역시 전환관계로 이어졌지요? 이번에는 3번 문장을 봅시다. 3문장에서 ‘한편’ 앞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그랜트 장군의 군대가 남군을 추격한 것’입니다.

교사 : 뒤 문장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세리단 장군의 기병대가 적의 군수물자 열차를 포획한 것’입니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세리단 장군의 기병대가 적의 군수물자 열차를 포획한 것’은 ‘그랜트 장군의 군대가 남군을 추격한 것’과는 다른 별개의 내용이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 전체 전쟁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이라면 ‘한편’의 앞과 뒤 문장관계는 전환형이 아니라, 뒤의 문장이 앞의 문장에 대등하게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랜트 장군’의 전쟁

상황을 진술하다가 ‘세리단 장군’의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앞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겠지요? 이번에는 4번 문장에서 ‘어쨌든’ 앞의 문장의 화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학생 : ‘그녀에게 뽀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 : 뒤 문장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노인이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그녀에게 뽀족한 수가 없는 것’과 “노인이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이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환형이지요? 이번에는 5번 문장에서 ‘아무튼’ 앞의 문장의 화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학생 : ‘그의 고통에 대해 동정하는 것’입니다.

교사 : 뒤 문장의 화제는 무엇이지요?

학생 :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그녀의 고통에 대해 동정하는 것’과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역시 긴밀한 연결 관계가 아닌 내용이 이어졌지요? 이처럼 앞 문장과 서술 방향이 다른 새로운 내용이 이어질 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가 전환형입니다. 즉, 앞의 문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을 새롭게 연결되니까 화제가 ‘전환’되는 것이며, 화제

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가 ‘그런데, 그러면, 한편, 어쨌든, 아무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 교사 주도적 적용

교사는 두 개의 문장이 각각 ‘그런데, 그러면, 한편, 어쨌든, 아무튼’의 다섯 가지 접속부사로 연결된 글과 다른 접속부사로 연결된 글을 함께 제시한다. 각 글 앞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제시문 14

1. 오염된 말의 순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쪽에서는 깨달음의 의식이 아직도 흐리다.
2.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유명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읽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3.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매무새, 이렇듯 그는 멋쟁이였다. 그렇지만 그는 꾸며서 이루어지는 멋쟁이가 아니었다.
4. 위대한 행동가는 대개 심오한 사상가가 되기 어렵다. 반면에 사색적인 인간은 상반되는 사상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다.
5.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영국의 새들을 몽땅 미국 땅에 가져다 풀어놓자는 계획이었다. 그러면 미국은 자연스레 영국처럼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6. 이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가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또 이를 공포한 행정부 잘못도 크다.
7. 홍경애는 독립 운동가의 딸이나 상훈에게 희생된 인물이다. 한편 홍경애는 공산당원인 피혁과 사상적 관련을 맺고 있다.
8. 낙숫물이 튀어 나무에 닿지 못하도록 처마를 깊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농사를 짓는 데는 깊은 처마가 필요하였다.
9. 낙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낙서는 감정을 분출하는 자유로운 통로라고 할 만하다.

10.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교사 : 이 글을 마음속으로 읽고 ‘전환형’이라고 생각하는 글의 번호에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수행한다.

교사 : ‘전환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맞았어요. 그러면 전환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접속부사는 어떤 것
이 있었지요?

학생 : 대답한다.

(마) 독립적 연습

교사 : 두 개의 문장이 각각 ‘그런데, 그러면, 한편, 어쨌든, 아무튼’의 다
섯 가지 접속부사로 연결될 수 있는 글과 다른 접속부사로 연결
될 수 있는 글을 함께 제시하되, 접속부사가 들어갈 자리에 접속
부사 대신에 ()를 하여 나눠 준 다음 수행할 과제를 알려준다.
본 보고서와 달리 학생들에게 제시된 글에는 접속부사 대신에 ()
가 되어 있다.

제시문 15

1.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 간 사람들은 궁핍한 삶
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다고 막
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상이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2.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홀로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 했다.
3.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써 배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도 많다. (가령) 콜레라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미생물인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이 먹어 보아서 그 성능을 증명하려 하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얻기 전에 벌써 죽어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4. 그녀는 쉬지 않고 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메모를 하여 그것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였다.
5. 학교도서관은 앞으로 정보화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첨단 정보 통신 매체와 다양한 뉴미디어들을 새롭게 수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자.
7. 탁월한 디자이너는 자연의 현상에 주목한다. (예컨대) 비행기나 자동차 등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기계를 설계할 때에는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얻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8.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것은 음운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된다.
9. 과연 그런 것도 이상이란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사람만이 이러한 문화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또 창조할 능력을 가졌다.
10. 나는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깐 괜찮아요. (설령) 차가 도랑에 들

어박한다고 해도,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치지 않을 것이요.

“먼저 학번과 이름을 쓰고, 전환형 접속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번호에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실행한다.

교사 : 학생들이 실행한 과제에 대하여 실행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잘못된 학생들의 과제물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글의 구조를 다시 주지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반대형, 첨가형, 상술형, 압축형, 귀결형, 인과형, 보충형의 8가지 접속부사에 대해 지도하였다.

4. 중심내용 파악 지도안

중심내용 파악 지도안 역시 직접 교수 방법에 의거하여 박경숙 외 2인이 제작한 수업 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수업을 설계하였다. 예시적 학습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

교사 : 지금까지 학습한 독해전략은 궁극적으로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형식단락에서 글의 중심내용을 찾기 위한 전략을 학습할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2장에서 요약한 중심내용 파악 지도 전략을 숙지시킨다.

(나) 예시문 제시

교사 : 두괄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형식단락의 글을 제시하고, 이 글은 순서를 알려주는 부사인 '먼저'와,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부사 3개로 구성된 글이며, 이 '먼저'와 접속부사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중심문장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시문 16

①'우리 역사상 근대를 어디에서부터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학문적 수준으로도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다. ②먼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학이 일어난 18세기경으로부터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③그리고 외국 자본주의의 세력과 최초로 만나는, 이른바 문호가 개방되는 병자수호 조약 체결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④또한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을 자주적 부르주아적 정치 개혁으로 보고 그것을 근대화의 시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⑤게다가, 전면적 농민전쟁으로서의 갑오 농민 혁명과 그 결과로 단행된 제도상의 전면 개혁으로서의 갑오개혁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다) 직접적 교수

교사 : 다 같이 이 글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어 보세요.

교사 : 이 글에서 중심내용이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학생의 대답에 동의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어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그러면 그 중심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문장들은 몇 번이지요? (학생이 대답하면 교사는 칠판에 화제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개념들을 도식화한다.)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뒷받침 내용들을 이끌어 주는 부사와 접속부사는 무엇이지요?

학생 : ‘먼저, 그리고, 또한, 게다가’라고 대답한다.

교사 : 이러한 접속부사는 8가지 접속부사의 기능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이것은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것들이지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칠판에는 접속부사,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중심내용

① 근대의 기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접속부사) 뒷받침 내용

- ② 뒷받침 내용 1 : (먼저) 실학사상이 일어난 18세기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③ 뒷받침 내용 2 : (그리고) 문호가 개방되는 병자수호조약체결 때로 보는 견해가 있다.
- ④ 뒷받침 내용 3 : (또한) 부르주아적 정치개혁이 일어났던 갑신정변 때로 보는 견해가 있다.
- ⑤ 뒷받침 내용 4 : (게다가) 제도상의 전면 개혁이 일어났던 갑오개혁 때로 보는 견해가 있다.

※ 먼저, 그리고, 또한, 게다가 : (첨가형) 접속부사

교사 : 이처럼 이 글은 하나의 중심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의 중심문장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 글처럼 중심내용이 앞에 나오는 글의 구성방식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일반적으로 글의 첫 문장이 중심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 독해를 할 때는 첫 문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 교사 주도적 적용

교사는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미괄식으로 구성된 형식단락의 글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제시문 17

①일 년마다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민속놀이, 그 중에서도 집단적 놀이는 삶의 긴장을 해소해 주고 구성원 간의 화목을 도모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②민속놀이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가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된다. ③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삶의 긴장을 풀게 되고 구성원 간의 긴장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이런 점에서 근래에 와서 명절 때 이웃이나 가족 간에 윗놀이가 성행한다든가, 도시에서 농악놀이를 행하면서 서로 간에 화목을 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⑤나아가 지역적으로 전승되는 민속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지역 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일고 있음은 민속의 존재 의의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창조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⑥요컨대 민속이 지닌 참다운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유익하게 될 것이다.

교사 : 이 글을 마음속으로 읽고 중심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문장 번호에 √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수행한다.

교사 : 중심내용이 들어 있는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맞았어요. 중심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은 몇 번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뒷받침 내용들을 이끌어 주는 부사는 무엇이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이러한 접속부사는 8가지 접속부사의 기능 분류 중 어디에 해당
하지요?

학생 : 대답한다.

교사 : 좋아요. 이 뒷받침 문장은 마지막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것들이지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칠판에
는 접속부사,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접속부사) 뒷받침 내용

- ① 뒷받침 내용 1 : 민속놀이는 삶의 긴장을 해소해 주고 구성원 간의
화목을 도모해 준다.
- ② 뒷받침 내용 2 : 민속놀이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된다.
- ③ 뒷받침 내용 3 : (왜냐하면) 삶의 긴장을 풀고 구성원 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뒷받침 내용 4 : 근래에 윗놀이, 농악놀이를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 ⑤ 뒷받침 내용 5 : 지역 민족 문화 축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민족
의 존재 의의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다.

※ 왜냐하면 : (보충형) 접속부사

그러므로 : (귀결형) 접속부사



중심내용

⑥ (요컨대) 민속놀이의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고 계승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교사 : ③은 ‘왜냐 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②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요? 왜냐 하면은 앞의 문장에서 주장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유 제시’는 중심내용에서 제외되니까 ‘왜냐 하면’에 이끌리는 문장은 중심내용이 될 가능성이 낮겠지요? ‘요컨대’는 결론을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⑥은 ‘요컨대’로 이어져 있으니 중심문장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마) 독립적 연습

교사 : 각 문장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양괄식으로 구성된 형식단락의 글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글의 구성방식 : ()	학번 :	이름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제시문 18</div> <p>①몸에 대한 유학적 사유의 특징은 몸을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②즉, 유학적 전통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나의 몸을 바라보는 공동체 안의 상호 주관적인 시선이다. ③(그 결과) '나'는 그 시선들 속에 드러나는 몸으로서 존재한다. ④이 점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수신'의 내용이 항상 그런 상호 주관적 시선들 속에 자신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데에서 확인된다. ⑤그러므로 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사회성을 지니는 몸으로서의 존재인 것이다.</p>		
<p><글의 구조 정리하기></p> <p>중심내용 :</p> <p>뒷받침 내용 ① : _____</p> <p>뒷받침 내용 ② : _____</p> <p>뒷받침 내용 ③ : _____</p> <p>※ 접속부사의 분류 및 기능</p> <p>즉 : _____</p> <p>그러므로 : _____</p>		

교사 : 먼저 학번과 이름을 쓰고, 중심내용이 들어 있는 문장은 번호에
 √표를, 뒷받침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장에는 ○표를 해 보세요.

학생 : 과제를 실행한다.

교사 : 학생들이 실행한 과제에 대하여 실행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잘못된 학생들의 과제물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면서 글의 구조를 다시 주지시킨다.

V.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중심내용 파악 전략 지도가 독해력 신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 가설 1의 검증

이 연구의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반과 비교반의 ‘문장 연결 관계 파악 능력’의 평균 점수에 대하여 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 검사

실험 처지를 하기 전에 실험반과 비교반이 동질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두 집단이 각기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점수는 부록Ⅱ의 사전검사지의 20문항 중 문장 연결 관련 문항만 따로 떼어내어 계산하였다. 문장 연결과 관련된 문항은 총 4문항이었으며 문항당 배점은 5점, 만점은 20점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는 <표5>와 같았다.

<표 5> 사전 검사 결과

	대 상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P
문장 연결 관계 파악	실험반	32	8.91	4.53	.490
	비교반	31	9.68	4.27	
P>.05					

사전 검사 결과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평균점수가 0.77이 높았다. 평균점수가 0.7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가 .490으로 .05보다 크다. 따라서 두 집단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업을 받기 전의 두 집단의 문장 연결 관계 파악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사후 검사

구조표지(접속부사)를 지도한 후 실험반과 비교반의 독해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록Ⅲ의 사후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사후 검사에서도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연결과 관련된 문항은 4문항이었으며, 문항당 배점은 5점, 총점은 20점이었다. 사후 검사 결과는 <표6>과 같았다.

<표 6> 사후 검사 결과

	대 상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P
문장 연결 관계 파악	실험반	32	12.50	4.21	.004
	비교반	31	9.35	4.23	
P<.05					

사후 검사 결과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 점수가 3.15점이 높았다.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만으로 이 전략이 독해력 신장에 효과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P가 .004로서 .05보다 작았다. 이것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구조표지(접속부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독해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가설을 긍정하는 결과이다. 즉, 구조표지에 대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독해력이 향상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

이 연구의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독해 능력에 대한 t 검사를 실시했으며,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 검사

실험 처지를 하기 전에 실험반과 비교반이 동질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의 점수는 부록Ⅱ의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사전 검사는 두 집단이 각기 문장 연결 관계 및 글의 내용을 파악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문항은 총 20문항이었으며 문항당 배점은 5점, 만점은 100점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는 <표7>과 같았다.

<표 7> 사전 검사 결과

	대 상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P
독해력	실험반	32	45.16	16.14	.715
	비교반	31	46.61	15.30	

P>.05

사전 검사 결과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평균점수가 1.45이 높았다. 평균점수가 1.4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가 .715로서 .05보다 크다. 따라서 두 집단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 대한 수업을 받기 전의 두 집단의 독해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사후 검사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지도한 후 실험반과 비교반의 독해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부록Ⅲ의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20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각 문항 배점은 5점, 총점은 100점이었다. 사후검사 결과는 <표8>과 같았다.

<표 8> 사후 검사 결과

	대 상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P
독해력	실험반	32	54.69	11.14	.009
	비교반	31	47.42	10.24	

P<.05

사후 검사 결과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 점수가 7.27점이 높았다.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만으로 이 전략이 독해력 신장에 효과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P가 .009로서 .05보다 작았다. 이것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 대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독해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가설을 긍정하는 결과이다. 즉, 중심내용 파악 전략에 대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독해력이 향상되었다.

VI. 결 론

현대 사회에서 독해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과 학습에 있어서도 독해력이 중요한 도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독해력을 신장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글의 구조표지, 내용구조 및 구성형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그 결과 독해력이 신장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글의 구조표지 중에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외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접속부사’, 글의 내용 요소들 간의 관계 및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의 ‘내용구조 및 구성형식’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독해전략을 지도하기에 앞서 독해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글의 내용구조, 문장의 연결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정립한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학생들에게 지도했다. 교수-학습 모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박경숙 외 2인이 개발한 직접 교수법의 학습 지도 모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업 설계 및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부산장안고등학교 3학년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주 2시간씩 총 8시간 동안 지도하였다. 실험 대상은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구성하여, 실험반은 글의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적용하여 독해지도를 하고, 비교반은 그러한 전략에 대한 언급 없이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검사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은 동질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사후 검사 결과는 실험반이 비교반에 비해 평균점수가 3.15점이 높았다. 그래서 이 평균 점수의 차이가 독해력 신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05 수준에서 두 집단이 평균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한 결과 P가 .004로서 .05보다 적었다. 이것은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독해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검사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은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심 내용 파악 전략을 지도 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점수가 7.27점이 높았다. 이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사를 실시한 결과 P가 .009로서 .05보다 작았다. 즉, 이 평균 차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서 가설 2를 긍정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중심내용 파악 전략을 지도하면 독해력이 신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독해 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 과정에도 독해 방법 지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국어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독해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7차 국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에서처럼 문학 작품 중심의 읽기 단원을 조금 줄이고 설명적인 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1993),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점출(1999), 「읽기 전략 지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독해력 신장」, 전국
교원연합회.
- 김봉순(1996), 「텍스트 의미 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김선영(2003), 「현대 국어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 김수영(1999), 「텍스트 구조 학습을 위한 읽기 전략 지도 방안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숙(2000), 「텍스트 구조 지도가 독해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숙, 임두순, 현주(1988),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Ⅰ)」, 한국
교육개발원.
- (1990),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박수자(1995), 「텍스트 독해와 독해 지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 No. 1.
- 박용한, 최병연(2003), 「독해전략 교수법이 초인지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 『교육심리학연구』 제17권 제1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 손동인(1985), 『오늘의 문장강화』, 서울 : 창조사.
- 유양희(2002), 「중심내용 확인 수업의 효율화를 위한 독해지도 전략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희(2003), 「텍스트 구조 단서를 활용한 중심내용 찾기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은(1994), 『총체적인 언어 교육, 교실적용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이은희(1992),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속어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 2집.
- 임두순(1989), 「독해전략훈련의 학습효과 연구」, 중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성복(1998), 「정교화 전략을 활용한 읽기 지도와 독해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재성(1989), 『교단을 위한 문장론 개설』, 제주:제주문화사.
- 장하늘(1993), 『고교 문장표현법』, 서울 : 문장연구사.
- 전진영(2001), 「독해력 향상 방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4~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제지.

<부록 I>

접속부사 지도 예시문

1. 반대형

(가) 직접적 교수 예시문

-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 간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상이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 사실 그 일을 하느라고 고생 좀 했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매무새, 이렇듯 그는 멋쟁이였다. 그렇지만 그는 꾸며서 이루어지는 멋쟁이가 아니었다.
- 위대한 행동가는 대개 심오한 사상가가 되기 어렵다. 반면에 사색적인 인간은 상반되는 사상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최초의 비행기는 새를 모방함으로써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의 엔진이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새의 날개가 지닌 양력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다.

- 저는 말할 수 없이 걱정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
-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가곡은 가사가 있는 만큼 소리 그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기악곡은 대체로 소리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 누구나 소리가 표현하는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3) 학생 독립적 연습 에시문

- 현대의 조명 기술 정도면 전조등을 한 개의 평면광선으로 처리하고 운전자의 눈을 현혹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노상의 필요한 곳만 비출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 임금 역시 여성은 대체로 남성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의 조건 속에서도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다수의 저소득층 여성들로서는 자본을 위해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 전자는 끝까지 청자를 잡아 놓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후자는 청자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전자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지만, 후자는 청자를 끝까지 붙들어 두는 긴

장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닌다고도 말할 수 있다.

2. 첨가형

(1) 교사 직접적 교수 예시문

- 그녀는 쉬지 않고 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메모를 하여 그것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였다.
- 이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가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또 이를 공포한 행정부 잘못도 크다.
- 세계적으로 생산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의 유형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관계 등 사람들의 생활양식뿐 아니라 사고방식, 가치관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 옆집 아이는 똑똑하고 영리하여 ‘똥똥이’라고 불렸다. 게다가 착하기도 하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다.
- 낙숫물이 튀어 나무에 닿지 못하도록 처마를 깊게 하였던 것이다. 더군나 농사를 짓는 데는 깊은 처마가 필요하였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앞으로 주된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이 되어야 하고 이는 이들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 개혁이든 국가전략 설정이든 세계 경제전쟁시대에는 일선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기업경영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생명과학은 종자 개량 등을 통하여 녹색 혁명을 일으켜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또** 수확이 많고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기도 했지요.
 -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탈산업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면서, 정보 지식을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의한 사회 변동, 물질주의적 가치의 퇴조' 등이 미래 정보 사회의 주요 특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그리이스는 고작 그리이스 반도의 끝을 차지한 작은 민족에 불과했다. **게다가** 하나하나의 도시가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도시 국가로 분립되어 있었다.
 - 뒤로 토함산을 등지고 왼편으로 울창한 송림을 끌며 앞으로 광활한 평야를 내다보는 절의 위치부터 풍수쟁이 아닌 나의 눈에도 벌써 범상치 아니했다. **더구나** 돌 층층대를 쳐다볼 때에 그 굉장한 규모와 섬세한 솜씨에 눈이 어렸다.

(3) 학생 독립적 연습 예시문

- 지금은 세계 경제전쟁시대이므로 실명제는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정책담당자나 국민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체제는 자유경제체제이므로 실명제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우선 유사 도매시장을 정리하여 모두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도매시

장 관리체계의 과감한 효율화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 중매인의 수를 점차 줄여 법인화, 도매상화 시켜야 하며 경매가 아니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이 신속히 행해질 수 있는 거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 초국적 금융 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 위기를 낳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 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당시 아테네는 아직도 구석진 곳에 존재하는 작은 나라로서 자원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국력 또한 극히 약했던 것이다. **(게다가)** 나라 안에는 당파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이다.
- 아버지 일만 해두 한 사람의 욕심과 주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젠가? **(더구나)** 나 같은 위인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구 묘한 피를 부리겠나?

3. 상술형

(1) 교사 직접적 교수 예시문

-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용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부정적인 이미지는 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거를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무엇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이고 무엇과 비교했을 때 비

정상적인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써 배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도 많다. **가령**, 콜레라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미생물인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이 먹어 보아서 그 성능을 증명하려 하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얻기 전에 벌써 죽어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비례가 있는데, 이 비례가 만물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다.
- 학교도서관은 앞으로 정보화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첨단 정보 통신 매체와 다양한 뉴미디어들을 새롭게 수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탁월한 디자이너는 자연의 현상에 주목한다. **예컨대** 비행기나 자동차 등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기계를 설계할 때에는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얻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 유전자의 기능 및 발현 패턴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가령**, 최근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 알려진 수많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자 할 때,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학생 독립적 연습 예시문

- 동양화는 산점투시를 채택함으로써 구도에 융통성을 갖게 된다. (즉), 시야를 고정시키는 초점 투시의 제약을 벗어남으로써 한 공간 안에, 혹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출현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다.
- 시름의 해소는 앞에서 말한 술의 효용 중 소극적 기능이라 하면, 적극적 기능이 또 있다. (말하자면), 기뻐할 일이 있거나 즐거운 자리가 마련됐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구실이다.
- 그것은 공간의 구조가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커져 가다가 해산 후에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말한다.
-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4. 압축형

(1) 교사 직접적 교수 예시문

-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 내면 오히려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는 내용이다. 즉,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다.
- 마침내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파리스에게 그 심판을 일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화근이 되는 일을 맡기게 된 셈이었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표준의 구체적 수준과 체계를 실제로 보여 주는 일정한 표준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표준어를 구체적 실제로 보는 표준어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 BC 5백년 경 페르시아는 동쪽으로 인도를 국경으로, 서쪽으로는 에게 해에 미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동양의 한나라 및 당나라에 맞먹는 동양 유수의 대제국이였다.

(3) 학생 독립적 연습 예시문

-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구조라든가 정부나 기업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방식에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은 변동의 기본 동인으로서 사회 변동에 자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 컴퓨터의 혁신, 발전이 하도 빨라서 컴퓨터 사용자는 내일의 진보는 믿으면서도 어제로 향하는 역사 감각은 무디어진다. (말하자면), '시간의

셈'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5. 귀결형

(1) 교사 직접적 제시 예시문

- 노인의 말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그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 언어 기호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말소리, 어휘, 그리고 문법 규칙 같은 하위의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의 체계는 또다른 하위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요컨대, 언어는 여러 층위로 나누어질 수 있는 체계인 것이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물레는 간디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건설에 필요한 인간 심성의 교육에 알맞는 수단이기도 했다. 물레질과 같은 단순하지만 생산적인 작업의 경험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분리 위에 기초하는 모든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에의 참여와 거기서 얻는 기쁨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간디는 생각하였다. **결국** 간디의 사상은 욕망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욕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 현대의 우리 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층적 명분관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러나 평등사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나 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오늘의 시민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3) 학생 독립적 연습 에세이

-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무지조차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다름직도 하다고 하였거니와, 노자는 지의 불필요를 아는 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였듯이, 지가 불필요함을 지로써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지(知) 이상의 것도 지를 통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이다.
- 겸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혹은 혜원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화보 모방주의의 인습에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정취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산수화나 인물화에 말라붙은 조선 시대의 화풍에 항거하여, ‘밭 가는 농부’, ‘대장간의 풍경’, ‘서당의 모습’, ‘씨름하는 광경’, ‘그네 뛰는 아낙네’ 등 현실 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렸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혁명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의 그림이 민족 문화의 홀

를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6. 인과형

(1) 교사 직접적 교수 예시문

- 낙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낙서는 감정을 분출하는 자유로운 통로라고 할 만하다.
- 시저가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브루투스가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을 때 시저는, “아들이여, 너마저!”라는 한 마디를 내뱉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로마의 제 1인자는 쓰러지고 다시 피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리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의 세계가 있는 걸세. 그러니 그걸 존중해 주어야지.
-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게 된 후에, 그 욕망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게 된다.
- 국어의 이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국어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많은 이차적 사실이 언급되어 장문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국어 문장을 쓸 때에는 되도록이면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중간 중간에 접속어를 넣어 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것은 음운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리므로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된다.
- 새로운 계급은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계급을 그 특권적 지위에서 추방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지배계급의 자리에 앉기 위해 노력한다. 이리하여 항상 계급의식에 대한 자각과 함께 계급투쟁이 역사에 탄생하는 것이다.
- 사람은 먹기도 해야 하겠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를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 성장 환경이 다르면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법일세. 그러니 무조건 애들만 나무랄 게 아니네.
- 전자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은 모든 사람의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해쳐 놓는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특이하고, 격리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서로 모르고 지냈던 여러 집단의 내막이나 사정과 정보들이 노정된다.
- 대기 중의 부유 먼지는 주로 수만 분의 1 내지 수백 분의 1밀리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들인데, 이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면 오염원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 입자들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고 그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려면 고도의 과학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학생 주도적 연습 예시문

- 모든 나라들은 세련되고 노골적인 차이만 있을 뿐 각각 자기 나름대로

양식화된 여성들의 격리를 행한다. (그리프로) 여성들의 자유에 대해 일방적인 척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 아내들은 신분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싶어도 그러한 허영심을 꼭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수공업 마스터들의 아내들은 정숙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하는 조심성 있는 주부의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이 되었다.
- 이렇듯 많은 개혁을 했으나 여전히 달력과 계절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이 생겼다. (그리하여) 기원 전 45년에 시저가 그리스의 달력을 받아들여 1년을 365일로 정했다.
- 첨단 기술은 기초 과학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리니) 회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 개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 과학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 텔레비전을 보고 이해하는 데는 인쇄 문화에서처럼 어려운 문자 해독력이나 추상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른처럼 배우고, 또한 어른에게서 배우기보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 더 배운다.
- 전세계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니만큼 정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예측 기술과 측정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기의 화학 반응과 물리 과정을 포함하는 대기 순환 모델의 예측 기술과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지구 환경 관측 기술이 21세기에 많이 연구되어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7. 보충형

(1) 교사 직접적 교수 예시문

-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 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페르시아 전쟁 전후가 그리스의 황금시대였다. **특히** 아테네는 번영의 정상에 다다랐다.
- 이러한 사례는 서양과는 다른, 우리 식의 수학적 사고가 분명히 존재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계승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 인간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런 사람은 이상을 가졌다고 할지, 못 가졌다고 할지……. **실령**,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상은 인류에 해독을 끼치는 종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과연 그런 것도 이상이란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교사 주도적 적용 예시문

- 거시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 **왜냐 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볼 때 과학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인간의 생활공간에 관해서는 그러한 한계성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순우리말을 가지고 새말을 만들자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서양 외래어에 대해서 아직 큰 반성이 일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 국민은 절대군주의 애첩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 **실령** 이 여자가 진흙구덩이와도 같은 하층계급의 비천한 신분에서 꽃가마를 타게 되었을지라도…….

(3) 학생 독립적 연습 예시문

- 합성어나 파생어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근’과 ‘접사’, 또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형식에 또다른 복잡한 형식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는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 문화계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 안타이오스의 경우와 같이, 수학도 자연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만약) 수학이 자신이 태어난 견고한 대지에서 공기가 희박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무르면, 힘이 약화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우리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다. (설령) 인위적으로 잘 디자인된 작품을 보고서 감탄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결코 자연의 위력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부록 II>

독해력 검사지(사전검사)

제 3학년 반 번 이름 :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속 축전이 열리면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농악과 탈춤이다. 탈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히 가지고 있다. 일본, 중국,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도 민간 신앙과 연관된 민속놀이로서 탈춤이 있다고 한다. 탈춤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그 기본은 자신을 가면으로 감춤으로써 탈의 신통력과 주술력을 구사하는데 있다. 탈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탈춤에서는 상놈이 되레 양반에게 호령을 하기도 한다. 오광대놀이에서는 상놈 ‘쇠뚝이’가 양반에게 호통을 친다. 다 탈을 썼기에 강자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탈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케 해 준다. 아무래도 탈의 백미는 처용무에서 볼 수 있는 처용면(處容面)일 것이다. 처용의 얼굴이 역신을 물리치는 주술력의 징표로 사용됨으로써 아무리 비천한 신분의 연희자라도 탈을 통해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당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 이 때의 탈은 당대의 특권 계급인 양반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권위의 화신으로 둔갑한다. 그리하여 ㉠탈의 익명성에 가탁하여 평소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벼슬아치의 타락상을 마음껏 풍자하기도 하는 것이다. 탈을 빌어 마음껏 양반을 능멸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양반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의 압제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은 조상의 혈통을 기준으로 세습되었기에 설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여 벼슬을 살지 않더라도 땅과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병역과 세금마져 면제받는 특권 계급으로서 양반 대접을 받았다. (A) 평민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억압했던 것이다. 이런 양반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탈

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양반 가면이 대부분 언척이 등으로 묘사되는 것도 양반에 대한 반감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공연을 통해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탈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탈의 풍자 대상은 양반뿐 아니라 승려들이기도 하다. 승려에 대한 풍자도 파계승과 같은 부도덕한 중들의 타락상에 대한 신랄한 야유로 나타난다. 물론 승려는 양반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하층의 신분이다. 그러나 승려들은 고요한 산중에서 불도를 닦아 지고한 위치에 이르러 비천한 자신들의 왕생극락을 책임져야 할, 그들로서는 마지막 귀의처 같은 것이다. 그런 승려가 고려 때에 이르러 부패한 왕권과 결탁하여 온갖 폐풍을 자아냈던 것이다. 가면극등이 파계승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야유한 것은 이처럼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 탈춤의 연희자나 그것을 구경하는 관객들은 하천한 서민들이다. 서양의 가면무도회라는 것이 춤추고 마시는 유희라면, 한국의 탈춤은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자신들의 울분을 토로하는 해원의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층 서민들의 놀이가 우리 문화의 한 독특한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 역시 또 다른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마)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이런 놀이 형태가 양반들을 비판한 데 대해 양반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울분을 양반 특유의 도량으로 희석시켰다고나 할까. 이 점은 아주 뛰어난 탈춤의 중층적인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양반 체제 유지를 위한 용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양반다운 포용력의 발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탈은 그것에 가탁하여 절대 권력 계급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의 과학은 국제적 수준에서 까마득히 뒤져 있다. 과학 교육의 내용에서, 과학 연구 활동의 양과 질 양쪽 모두에서, 이들을 위한 투자 및 지원에서, 그리고 과학 행정,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음은 물론, 대만 같은 경쟁국, 심지어는 인도나 중국보다도 뒤져 있는 면이 많은 것이다.

(나) 그러나 우리 과학의 뒤떨어짐이 이런 구체적인 면보다는 ㉠ 다른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과학을 중요시하고, 그 진흥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다. (A)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대부분 과학 그 자체를 향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술에의 응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과 이익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정치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과학을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며 과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특히 정부의 과학 정책에서 이 점이 심해서, 우리나라 과학 정책의 주된 목표는 과학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학을 경제의 한 분야로서 취급할 뿐 그 문화적 가치 같은 것은 거의 안중에 없다. 우리의 과학은 우리 사회 안에서 그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다른 실용적 목적을 위해 부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 과학에 대한 이 같은 실용 위주의 시각은 우리 과학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 한 가지를 빚어냈다. 과학 활동의 기초나 과정은 등한히 한 채 최종 결과와 산물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과학은 이미 얻어진 과학 지식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얻어 낸

완성된 기술과 제품을 받아들여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외국으로부터 그것들을 도입하는 데만 급급할 뿐 그것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나 얻어 낸 과정을 무시해 왔다.

(라) 우리 과학의 이 같은 '최종 산물 위주'의 경향은 과학 지식이나 기술, 제품 등만을 대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과학 발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인력 양성을 두고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개화 초기에 외국의 고급 과학 인력, 또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과학 인력에 의존했던 상황이 우리 자신의 과학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부 수준에 치중한 채 대학원 교육은 방치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과학 교육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물론 그 사이 이공계 대학원의 대폭 확충이 있었지만, 연구를 위한 지원이 이에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산물 — 과학 지식 — 의 전수에 치중했을 뿐 학생을 직접 과학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연구 능력을 심어 주는 진정한 대학원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결국 우리 과학에 있어서 자체적인 과학 인력 양성 과정의 부재(不在)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아직도 많은 과학 교육 및 연구 기관이 외국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이 과학이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고, 추구의 과정이나 그 기초는 무시된 채 최종 결과, 산물만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과학이 세계의 과학을 선도하거나 세계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국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1.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에 대한 태도
- ② 실용적인 목적 추구
- ③ 공리주의적 태도

- ④ 과학의 문화적 가치 추구
- ⑤ 최종 결과와 산물에 대한 관심

12. (A) 안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고 ② 그런데
- ③ 하지만 ④ 왜냐 하면
- ⑤ 가령

13. 각 문단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것은?

- ① (가) : 우리 과학의 상대적 낙후성
- ② (나) : 과학에 대한 실용주의적 가치관
- ③ (다) : 실용주의적 가치관의 문제점
- ④ (라) : 대학원 교육의 부실
- ⑤ (마) : 과학 자체에 대한 관심의 촉구

14. 다음 중, (마)의 논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우리 과학이 세계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 ② 우리 과학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우리 과학은 과학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우리 과학은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우리 과학은 최종 결과, 산물만 중요시하고 있다.

15. 우리 과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과학 자체의 독자적 가치를 존중한다.
- ② 자체적인 과학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 ③ 과학 활동의 기초나 과정을 중요시한다.
- ④ 실용주의적 과학관에서 탈피한다.
- ⑤ 과학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가 자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낯선 언어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는 외국어에서도 우리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외국어가 '우습게' 들린다거나 그런 말을

가지고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나) 민족 중심주의는 종종 타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적인 이름을 붙여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쪽바리', '피놈', '조센징', '검둥이', '흰둥이'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우리는 외국 사람들을 경멸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를 때, 나라 이름 다음에 '놈' 자를 붙이기도 한다.

(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민족 중심주의는 우선 유치한 무지의 소산이며, 다양한 타문화로부터의 고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 ③우리가 타문화를 경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문화가 낯설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욕구를 초월하는 기타 욕구들의 사회적 근원을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욕구를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우리는 따뜻한 털 스타킹 대신에 나일론 스타킹을 신고 다닐고 싶은 욕구, 유명 화가의 복사판 그림보다는 원본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 국가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싶어 하는 등의 욕구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의 명단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쌀밥과 김치를 즐겨 먹는다. 그런가 하면 독일 사람들은 고기와 감자를 즐겨 먹는다. 동양 사람들이 뱀과 개고기를 먹는데 비해 서양 사람들은 달팽이 요리를 고급 음식으로 생각한다.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원숭이 꼬리나 제비집 요리를 즐겨 먹는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 중심주의가 무지와 편협한 생각의 소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은 고유한 우리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를 자신의 문화에 의해서 가장 잘 충족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우리들의 인성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욕구들이 생물학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

래서 다른 사람이 이러한 욕구들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상 아릇'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여겨진다.

(라) ⑥분명히 민족 중심주의는 근시안적이고 편견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일련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미덕으로서 권장하고 있는 업적, 팽창, 발전, 발명 등의 배후에는 민족주의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상주의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우월하다는 신념으로부터 우리나라온다. 그밖에 전쟁이나 기타의 갈등에 있어서 자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민족 중심주의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인간의 존재 양식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문화적 상대주의조차도 따지고 보면 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민족 중심주의가 없이는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개성을 소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얼마만큼의 집단 정체감이나 자존심은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서든 간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민족 중심주의가 집단 구성원들의 '우리 의식'과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우리의 처음의 반응은 정당성을 갖는다. 왜냐 하면, 매우 빈번하게 민족 중심주의는 편협한 생각, 불신, 증오, 광신 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 중심주의는 선동가와 권력에 굽주린 자들에게 너무나 용이하고 편리한 조작의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학교, 신문, 라디오, 영화 등에서 자행되는 민족 중심주의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판단에 근거하는 타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②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상을 공통된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④ 주요 개념을 먼저 밝히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여러 가지 견해를 취합하여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 내었다.

17. 이 글의 주된 논의 대상은?

- ① 민족 중심주의 ② 타문화 평가
- ③ 사회적 욕구 ④ 문화적 상대주의
- ⑤ 객관적 판단

18. ㉠은 ㉡에 대하여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가?

- ① 이유 ② 상술
- ③ 압축 ④ 반대
- ⑤ 첨가

19. (가) ~ (마) 중, 민족 중심주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 기술한 것은?

- ① (가) ② (나)
- ③ (다) ④ (라)
- ⑤ (마)

20. 위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6. 위 글을 전개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교·대조하여 성격을 밝히고 있다.

<부록 Ⅲ>

독해력 검사지(사후검사)

제 3학년 반 번 이름 :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까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역사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설명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국권 상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그 사회를 지배한 사상이 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적인 자기 반성의 한 형태로 대두된 ㉠이 같은 인식은 비단 일반인뿐만 아니라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사를 연구하던 지식인들에게조차도 일반적이었다.

(나) 그러나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반성적인 자세에서만 전적으로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 외적인 또 다른 하나의 경로가 있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 사가들은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한국 민족의 역사를 되도록 과소 평가하여 자주성이 없는 역사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그 증거의 하나로 조선 후기의 당쟁을 부각, 거기서 당쟁성이라는 것을 꼬집어내어 것을 한국 민족의 선천적 민족성의 하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A) ㉢이는 근대적 학문이라는 미명을 빌린 건강부회(牽強附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지배라는 현실적 조건은 한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실처럼 믿게 만들었다. 한국인의 자기 반성적 감상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이 만큼, 그와 같은 주장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어떠한 일본인 학자들의 그와 같은 주장은 이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이기도 해서 그것이 끼친 영향은 심대한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흔히 접하게 되는, 민족을 파멸로 이끈 당파성, 그 실체로서의 당쟁, 당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의 성리학, 성리학 지배 사상으로 한 조선의 역사를 민족사에서 운위하고 싶지 않은 치부로 여기는 생각은 실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 옹고된 것이었다.

(라) 식민 사관의 극복은 한국 사학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각 분야에서 착실한 축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당파성에 관련되는 분야에서만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의식을 새로이 해 보려는 노력조차도 미미하여 도리어 의아한 감을 주기까지 한다. 오늘날 조선 후기사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사회 경제사 분야로서, 그것은 다른 하나의 식민 이론인 정체성 이론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였다. 긍정적 측면으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이 분야에 비하여, 같은 후기사이면 서도 당파성 이론에 직접 관련되는 사상사나 정치사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형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당파성 이론에 한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식민 사관의 태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같은 시기 사회의 역사를 놓고 일면은 긍정적으로, 다른 일면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므로, 재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시대 사상으로서의 그 역할이 어떠한가를 살피려는 노력보다 사상 자체를 두고, 그 좋고 나쁨을 가리려는 태도가 앞서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상에 대한 품평이 역사 파악의 본질이 아닌 한, 이러한 경향 또한 마땅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성리학은 중세적 사회 실

현에 기여한 사유 체계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 세기에 걸쳐 조선 사회의 지배 사상으로 굳어질 수 있었던 만큼 시대적 합당성이 있을 것 또한 자명하다. 따라서 중세적 사유라는 전제만 명확히 하면, ㉔조선 성리학도 평가받을 만한 그 나름의 의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7. ㉑ ~ ㉔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㉑ : 조선 후기의 당쟁성을 한국 민족의 선천적 민족성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 ② ㉒ : 일본인 학자들이 당쟁성을 한국 민족의 선천적 민족성의 하나라고 한 주장은 이론적이었을 뿐 아니라 정책적인 것이기도 했다.
- ③ ㉓ : 당파성 이론에 직접 관련되는 사상사나 정치사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형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 ④ ㉔ : 사상 자체를 두고 그 좋고 나쁨을 가리려는 태도가 앞섰다.
- ⑤ ㉔ : 중세적 사회 실현에 기여한 사유 체계이다.

2.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식민사관의 극복은 한국 사학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②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 ③ 성리학의 연구는 식민 사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 ④ 성리학은 중세적 사회 실현에 기여한 사유 체계이다.
- ⑤ 성리학은 시대사상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3. (가) ~ (마)의 중심 화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가) :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 ② (나) :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 ③ (다) : 성리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의 경로
- ④ (라) : 식민사관에서 못 벗어나는 당파성 이론
- ⑤ (마) : 성리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의 기대

4. (A) 안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고
- ② 그런데
- ③ 하지만
- ④ 왜냐 하면
- ⑤ 가령

5.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조선의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국권 상실과 관련이 있다.
- ② 사상은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 관련시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조선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탓이다.
- ④ 조선 후기의 당쟁은 조선의 성리학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허구적으로 조작되었다.
- ⑤ 성리학에 대한 평가는 조선의 역사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역사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나 연대 혹은 사실(史實)들을 암기해서 유식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㉑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가 보여 주는 교훈과 정신을 바로 체득하기 위하여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곧, ㉒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하여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역사 의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막연해질 때가 많다.

(나) 그런 역사를 겪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이미 겪은 다음에도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이나 실수를 되풀이할 때,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이라고 여러 철학자들이 말했는데, 이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현재라는 시간장 속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다. ㉓어제와는 다른, 변화된 오늘의 상황과 성격, 즉 오늘의 시대적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사람만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식은 우선 과거와 현재를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시대

다.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당파성도 반도적 성격에서 오는 것이요, 따라서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정 불변의 한국 민족의 선천적 민족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장구한 민족사의 전체에서 살펴볼 때에는 당파성을 한국 민족의 선천적인 성격의 산물이라고 고집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조시대에 당쟁이 작열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천적 민족성으로 삼을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다.

(나) 한국 민족의 당파성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와 직결되는 시기에 일치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현대의 불행이 그로 말미암은 바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일 것이다. 한국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자기 반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은 한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그러한 교활한 주장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 민족 스스로까지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다) 그러면 만일 당쟁이 민족성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물론 이조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조건에 말미암은 것이다. 어느 민족의 역사에도 국내적 대립 항쟁은 으레 있었던 것이다. ㉣단지 각 민족이 처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특수한 조건이 그러한 국내적인 대립 항쟁을 각기 색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하였을 뿐이다.

(라) (A) 서양의 중세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제후간의 무력 항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귀족들은 대개 중앙에 진출하여 관리가 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 대 지방의 무력 전쟁이 아니라 중앙의 정계를 무대로 한 권력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시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양반의 수는 증가하여 갔다. 그 반면에 관직의 수는 대략 일정해 있어서 대단한 변화가 없

었다. 일정한 수의 관직을 허다한 양반 귀족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노리게 되면, 거기에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싸움이 근대 사회에서의와 같이 이념이나 정강의 대립이 아닐 때에는 혈족 관계와 결부되어서 당파가 자손에게 계승되게 마련인 것이다.

(마) 그러므로 이조의 당쟁은 일정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그것은 한국 민족의 타고난 선천적 성격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찰탁적 야심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 민족의 당파성론을 제시하여 그 정치적 독립의 가능성을 말살하려는 이론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11. ㉠과 같이 말한 직접적인 논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당파성은 반도적 성격에서 오는 것이다.
- ② 당파성은 현대와 직결되는 시기에 있었다.
- ③ 당파성은 한국인의 민족성이다.
- ④ 당쟁은 장구한 민족사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 ⑤ 당쟁은 민족성에 의한 것이다.

12. (A) 안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고
- ② 그런데
- ③ 하지만
- ④ 왜냐 하면
- ⑤ 가령

13. 위 글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 ① 당파성
- ② 역사성
- ③ 민족성
- ④ 특수성
- ⑤ 지역성

14. 각 문단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당파성론의 허구성
- ② (나) : 당파성론의 배경과 그 실상
- ③ (다) : 당쟁의 원인
- ④ (라) : 한국과 서양의 권력 형태의 차이
- ⑤ (마) : 당파성론의 부당성

15. 위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육에는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한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특히 정책가들은 교육의 계획과 운영에서 이 명백한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한다. 그것은 교육에는 시차성(時差性)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시차성은 두 가지로 작용한다. 즉, ㉠하나는 교육하는 것 자체가 '긴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교육된 효과는 '긴 세월을 간다'는 것이다.

(나) 그래서 교육에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하는 것 자체가 긴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기엔 15, 20년이 걸린다는 시차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의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은 적어도 20년을, 때로는 30년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해야 '사람'이 된다. 서두를 수가 없다. 짧게는 수학 풀이 능력도 하룻밤 사이에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적어도 1년은 배워야 겨우 눈을 뜨게 된다. 테니스도 배한가지다. 겨우 눈을 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배우려면 수학과 피아노도 10년, 15년은 계속 배워야 한다.

(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물건, 자본은 잘하면 하루 아침에 끊어모아 형성할 수 있으나 인간 자본의 형성은 속상하리만큼 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지금 어떤 인간 자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20년 전부터 투자해서 길러왔어야 하며, 20년 후에 어떤 인간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면 지금 투자해서 기르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와서 한탄하거나 내일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따라서 교육은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 사업이다. 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치를 정책가들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

(라) 또 하나의 시차성은 긴 세월 동안 교육하고 나면 그 효과는 그 후 10, 20, 30년 더 긴 세월을 두고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교육의 효과는 사람의 생애를 간다. 한 번 형성된 인간 자본은 기계 시설과 같은 물건 자본과는 달리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감소 현상 없이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쓰면 쓸수록

증대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도 시설 자본보다 인간 자본의 수익률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마) 교육의 효과가 몇 십 년을 간다는 말은, 동시에 교육 안 한 효과와 잘못 교육한 효과도 몇 십 년을 간다는 말도 된다. 지금 태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나라는 어느 정책가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20, 30년 내로 경제적 비약의 가망은 없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이 일고 아이들이 해골 형상이 되어 있는 사진은 그들의 오늘의 비극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되는 빈약한 두뇌들이 20, 30년 후 벌이게 될 각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비극을 예보하는 사진인 것이다.

(바) (B) 극단적인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교육의 무대는 사회가 아니라 역사다. 교육은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이고, 교육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갖는다고 말해야 한다. 교육은 오늘이 사회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 문제를 풀기에는 별 효능이 없으며 지금의 학교 교육은 당장의 무역 개방 압력의 문제, 지방 자치의 문제, 공해의 문제 등의 해결에는 무능하고, 그것들이 학교 교육의 임무도 아닌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16. ㉠과 ㉡의 관계는?

- ① 보충 ② 전환
- ③ 반대 ④ 첨가
- ⑤ 인과

17. (가)와 (나)의 두 문단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은?

- ① (가)에서 제기된 문제가 (나)에서 구체화된다.
- ② (가)의 주장을 (나)에서 부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18. 각 문단에서 '교육의 시차성'에 대하여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가) : 교육 정책의 시차성
- ② (나) : 교육의 장기 투자의 특성
- ③ (다) : 인간 자본의 형성의 시차성
- ④ (라) : 교육 효과 발생의 시차성
- ⑤ (마) : 교육의 부정적 효과의 시차성

19. (B)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결론을 이끌어 간다.
- ②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
- ③ 논의를 상술하기 시작한다.
- ④ 원인을 밝힌다.
- ⑤ 예를 들어 논의를 뒷받침한다.

2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화제와 그것에 연관되는 세부 내용을 서술하였다.
- ② 화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서술하였다.
- ③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④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요소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혔다.
- 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